

ECONET WAY

꿈을 함께 하는 행복한 일터

A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purpose, dream & happiness toge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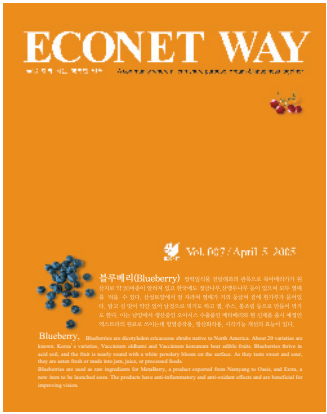


Vol. 007 / April 5, 2005

블루베리(Blueberry) 쌍떡잎식물 진달래과의 관목으로 북아메리카가 원산지
로 약 20여종이 알려져 있고 한국에도 정금나무, 산앵두나무 등이 있으며 모두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산성토양에서 잘 자라며 열매가 거의 둥글며 겉에 흰가루가 묻어있다. 달고 신 맛이 약
간 있어 낱것으로 먹기도 하고 잼, 주스, 통조림 등으로 만들어 먹기도 한다. 이는 남양에서 생
산중인 오아시스 수출품인 메타베리와 현 신제품 출시 예정인 엑스트라의 원료로 쓰이는데 항
염증작용, 항산화작용, 시각기능 개선의 효능이 있다.

Blueberry, Blueberries are dicotyledon ericaceous shrubs native to North America. About 20 varieties are known. Korea's varieties, *Vaccinium oldhami* and *Vaccinium koreanum* bear edible fruits. Blueberries thrive in acid soil, and the fruit is nearly round with a white powdery bloom on the surface. As they taste sweet and sour, they are eaten fresh or made into jam, juice, or processed foods.

Blueberries are used as raw ingredients for MetaBerry, a product exported from Namyang to Oasis, and Extra, a new item to be launched soon. The products have anti-inflammatory and anti-oxidant effects and are beneficial for improving vision.



에코넷웨이(ECONET WAY) 4월호
발행인 이병훈
발행처 (주)남양
편집기획 (주)남양 에코넷 기업본부
편집 오경아
편집·디자인 Intercube Design
인쇄 정광인쇄(주)

ECONET WAY April issue
Publisher : Bill Lee
Published by Namyang Company
Editing and planning by
ECONET Corporate & Shared Service Center, Namyang Company
Editor : Kyeongah Oh
Editing & design by Intercube Design
Printed by Jeonggwang Printing Co., Ltd

짜게 먹는 당신에겐 ... 바나나



지금은 ‘싼게 비지떡’ 처럼 되어 버린 바나나.
그러나 바나나가 가지고 있는 양질의 풍부한 칼륨
(100g당 380mg)을 외면해선 안된다.많은 심장학
자들은 높은 염분과 낮은 칼륨이 혈압을 높인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대인들은
칼륨보다 소금을 더 많이 섭취하고 있다.

우리의 전통 식단은 나트륨 과다 섭취를 부추기도록 짜여져 있다. 김치찌개를 먹으면서도 배추김치와 깍두기를 반찬으로 집어 먹는 식습관을 어찌하랴! 그래서 우리처럼 짜게 먹는 민족에게는 칼륨이 필요하다. 그나마 예전에는 고혈압을 줄일 수 있는 토란 음식을 자주 먹곤 했지만, 토란마저 사라진 지금의 식탁에서는 고혈압의 습격이 계속 되고 있다. 하지만 반가운 칼륨의 용사가 살아 있으니 그것이 바로 바나나다.

뿐만 아니라 바나나 추출액을 쥐에게 접종시켜본 결과 아무것도 접종하지 않은 쥐보다 ‘100배’ 이상의 백혈구의 활동이 활발해지더라는 연구보고서가 있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백혈구의 활동이 활성화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그만큼 증강된다는 이야기다. 효과가 이만하니 바나나는 영양과 건강 측면에서 꼼꼼히 더 살펴보아야 할 과일임에 틀림없다.

주머니 사정 걱정 없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바나나를 당신에게 적극 추천 한다.



ECONET WAY

공동, 협조, 나눔, 행복의 힘터 A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purpose, dream & happiness together

Contents

Company (ECONET 리포트)

02 > 미국 ECONET BSC 전략회의를 가지며 ...

06 > 남양알로에 알로엑스골드 액티브알로에

10 > 또 하나의 에코넷 (ECONET) 중심지 레이시(Lacey)

14 > 천연물 보고 블루베리

People

18 > 알로콧 Walt Jones의 에코넷 가족이 되기까지...

20 > 명사칼럼 내가 본 남양알로에 미국 워싱턴주 신호범 상원의원

24 > 부서별 소개 알로콧 생산관리/지원팀

28 > 칭찬 릴레이 두번째 주인공 (주)남양알로에 생명과학연구소 김진완

Culture

30 > ECONET 기업문화 알리기 (주)남양 세계 최고의 천연물 제조전문기업으로 가기위한 문화

32 > 문화탐방 러시아의 반야

36 > 풍물기행 세계를 가다 꿈과 희망을 해남도에서 그리며...

Info

40 > ECONET News Network • ECONET 자회사 소식

• ECONETIAN 신입사원 소개 • ECONETIAN 경조사 안내 • ECONETIAN 생일자 소개

52 > ECONETIAN 사진 콘테스트

56 > ECONETIAN 사진 공모 빅 이벤트 안내

58 > 4월호 퀴즈 및 당첨자 안내

Company (ECONET Report)

04 > ECONET BSC Strategy Meetings

08 > Alo-X Gold ACTIVAlloe by Namyang Aloe

12 > Another Center of ECONET Lacey, Washington

16 > Natural Product Blueberry

People

19 > My Way to ECONET Walt Jones, Aloecorp

22 > Namyang Aloe in My View Washington Senator Paull H. Shin

26 > All About Our Team. Go! Go! Operation Management Team, Aloecorp

29 > A Relay of Praises

The Seond Runner, Jinwan Kim, Life Science Research Institute of Namyang Aloe

Culture

31 > ECONET Corporate Culture

Namyang Company : A cultural code for the world's best natural product manufacturer

34 > Cultural Travelogue Banya in Russia

38 > Around the World Renewing Dreams and Aspirations on Hainan Island

Info

40 > ECONET News Network • ECONET Subsidiary News • ECONETIAN New Hires

• ECONETIAN Congratulations and Condolences • ECONETIAN Birthdays

53 > ECONETIAN Photo Contest

57 > ECONET Photo Contest and an Upcoming Big Event

58 > A Quiz for April and Winners from February



ECONET / BSC 전략 회의

2005년 2월 7~10일

글- 미국 유니베라
Nickie Storms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BSC'가 그리 생소한 용어는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에게는 비교적 새로운 개념으로 여겨진다. Derek Hall은 2002년에 UPI 직원들을 대상으로 BSC 제도를 도입한바 있다. 그러나, 오아시스와 알

로콧 직원들은 2004년 11월에야 처음으로 BSC 프로그램을 경험하였다. 사실, 이는 배우기가 좀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윤경수 에코넷 기업본부 본부장과 김석원 팀장, 그리고 한국BSC컨설팅의 인요환 대표가 2월에 미국을 방문하여 현재 한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BSC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소식에 우리 모두는 반가워했다. 여기까지 도와주러 오시는 분

들에게 감사했고, 하루라도 빨리 시작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남양으로부터의 손님들은 비가 내리는 2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에 도착했다. 사실, 일년 중 이맘때면 태평양 북서 지역에는 비가 자주 내린다. 눈을 볼 기회는 거의 없지만, 콜로라도주의 겨울에 지쳐있던 많은 이들은 이곳의 이런 날씨를 은근히 반기는 눈치이다. 여러분들도 이제 대부분 아시아시피 BSC 제도는 1992년 하버드 대학의 회계학과 교수인 Robert Kaplan 교수와 David Norton 박사에 의해 고안되었다. BSC의 취지는 성과 중심의 경영 관리 툴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이를 이용하는 목적은 크게 다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ECONET 철학, 미션, 비전 공유 및 이의 달성 방안 모색
- ECONET WEST BSC 제도의 구축
- ECONET WEST & ECONET EAST간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제도 구축
- ECONET WEST & ECONET EAST간의 균형적인 발전 달성

미국측의 경영진들은 현재 한국에서 적용되는 BSC 프로세스에 대해 2일간 집중적인 교육을 받으며, 미국에서 이 제도를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우리 모두는 이 과정이 향후 각 회사의 전략, 목표, 프로세스 평가를 위한 종합적이고 논리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긴 여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주 수요일에 BSC 교육 워크샵이 마무리되기는 하였지만, 그 주에 세웠던 우리의 목적과 목표를 모두 달성한 것은 아니었다. 대상을 책임자와 임원으로 확대하여 ECONET 내의 기업 문화 구축 작업을 위한 2일간의 세미나를 시작하였다. 이곳 Lacey의 직원 중 대다수가 최근에 새롭게 입사하여 ECONET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이번 세미나는 각 계열사의 구성원이 함께 모여 각 계열사의 목적과 계열사간의 상호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세미나는 해당 산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세계적으로 계열사가 어떻게 상호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유익한 발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기존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신입 직원들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점을 발표했다. 세미나에서는 이외에도 여러명의 초빙 연사를 만날

수 있었는데, 우선, Green Bay Packers 미식축구 팀 선수 출신인 Jerry Kramer가 와서 연설을 했다. Jerry Kramer는 전설적인 인물인 Vince Lombardy로부터 지도를 받았었는데, 그토록 사랑했던 미식축구를 그만 둔 후에는 실업인으로 진로를 바꾸어 기업 경영에서 성공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Packers에서의 생활을 비롯하여 자신의 인생 경험과 관련된 책을 여러권 출간하기도 하였다.

Jerry Kramer의 주요 메시지는 인내심, 성취감, 팀워크로 요약될 수 있다.

그 다음의 초빙 연사는 Color Code의 창안자인 Taylor Hartman로, 사람의 개성/성격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비즈니스 컨설턴트, 기조 연설, 교육 강사, 저술 활동, 퍼스널 및 경영진의 코치로 명성이 자자하며, 특유의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Taylor Hartman이 발표한 내용의 목적은 우리의 팀이 자신들의 성격 특징과 인생을 살면서 접하게 될 다른 사람들의 개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다. 세미나 참석자 모두 발표 내용에 공감하였으며, 팀에게 문화의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첫번째 계기가 된 듯 하다. 간단히 말해, 유니베라의 모든 이들은 4일간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개인적으로나 업무적으로 모두 너무나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모든 계열사가 하나의 커다란 팀으로써 함께 일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지역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의 일상 업무에 대해서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는 우리가 ECONET의 든든한 일원으로 활약할 수 있는 기초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ECONET / BSC Strategy Meetings

February 7~10, 2005

By Nickie Storms, Univera /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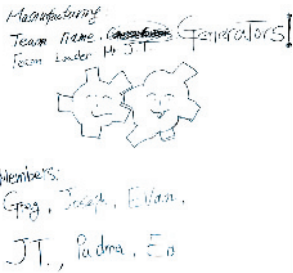
“BSC” is not a foreign word to the U.S. employees, however it is a very new word for many of them. In 2002 Derek Hall introduced a BSC system to the staff at UNIGEN Pharmaceuticals, inc. However Oasis and Aloecorp did not get their first taste of the BSC program until November 2004. This is a difficult and time-consuming process, so when we heard that Mr. K.S. Yoon and Mr. Greg Kim along with Mr. M.S. Ihn were coming to the U.S. in February to help train us on the current BSC system being used in Korea, we were grateful for their assistance and anxious to get started. Our guest from NamYang arrived on a rainy Saturday afternoon in February, which is very

common this time of year in the Pacific North West. Rarely do we ever see snow, which is a nice change from the Colorado winters that many of us where accustomed to. As many of you now know the BSC system was introduced in 1992 by Robert Kaplan, an accounting professor at Harvard University, and Dr. David Norton. The purpose of the BSC is to be a performance based business management tool. The main objectives for our use of this tool are to

- Share the ECONET Philosophy, Mission and Vision and seek ways to achieve them
- Establish the ECONET WEST BSC System.
- Establish a system to create synergy between ECONET WEST & ECONET EAST
- Achieve balanced growth between ECONET WEST & ECONET EAST.

Our U.S. Executive team spent the first two days in an intense training program on the current BSC processes in Korea, learning together how to implement the system in the U.S. All of us knew that this process would be a long road that would lead us to a comprehensive and logical outcome for our future evaluation needs of each company’s strategies, goals and process.

On Wednesday of that same week the BSC training workshop had ended, but our purpose and goals for the week had not. We were embarking on two additional days of seminars with all of our Managers and Executives to beg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d acknowledging our corporate culture in the ECONET. Given that many of our staff here in Washington have just been hired and are not familiar with the ECONET we felt that this would be a great opportunity for everyone from each organization to spend time together and understand what each entity’s purpose and connections to each other are. The seminar consisted of wonderful presentations detailing each industry and how we are globally connected to each other. Many of our employees old and new spoke about their personal experiences within our organizations. We were also very honored with several guest speakers during the seminar the first being Mr. Jerry Kramer a former Green Bay Packer Football player whom was coached by the legendary Vince Lombardy. Mr. Kramer has long since retired from the beloved American football game, and has diversified himself not only in the business world with companies that he has made successful, but as an author of several books relating to his experiences in life including his career with the Packers. Mr. Kramer’s message to us was one of perseverance, accomplishment and being a team player. Our next guest speaker was Mr. Taylor Hartman creator of the Color Code. Taylor Hartman is one of the world’s leading authorities in the study of Personality. He is a powerfully unique individual who is well renowned as a business consultant, keynote speaker, trainer, author, and personal and executive coach.



The purpose of Mr. Hartman’s presentation was to help teach our team about their personality traits and how to deal with other personalities that they will come across on the path of life. This information was well received by all whom attended the seminar and we feel that it was the first step in teaching our team the importance of diversity in our culture. In short we at Univera U.S. feel that the four days spent together where of great value personally and professionally. We learned not only how to work together as a team of companies, we have not only learned about ourselves in our day-to-day jobs we have begun to reach out to others around us in our community. I believe this is the foundation in making us apart a strong part of the ECONET.



위장 질환
치료와 예방에 탁월한 남양알로에
알로엑스골드 액티브알로에!



알로엑스골드 액티브 알로에는..

알로에 전문기업이자 천연물 시장 최고의 위치라는 위용을 자랑하는데 있어 빠질 수 없는 제품이 바로 남양알로에의 알로엑스골드 액티브알로에 제품이다. 남양알로에의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최고의 판매를 보이고 있는 알로엑스골드 액티브알로에는 2000년 산업자원부에서 생명공학 산업 분야의 중요성이 강조될 무렵, 남양알로에에서는 기존의 일반 원료나 자사의 TTS(Time, Temperature, Sanitation)공법에 의한 알로에 원료를 능가하는 효능을 보이는 원료 가공공법에도 지속적인 연구를 하였고, 생명공학 분야의 한국산업 발달에 기여코자 노력하는 기업으로 90년대초부터 천연식물을 통한 천연약물 개발 연구를 지속하고 있었다. 그 결실로 액티브알로에가 탄생한 것이다. 즉,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 알로에 생초가 어떻게 하면 보다 인간에게 유익함을 더해 줄 수 있느냐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다. 기존의 알로에 보다 세포재생과 면역회복 능력이 더욱 강화된 최상의 알로에로 알로에 효능 극대화를 실현한 자연보다 우수한 알로에! 더불어, 유효성분의 흡수와 전달을 빨리 되도록 하기 때문에 복합상승 작용을 나타내는데, 유효성분의 전달체로서 IASC(국제 알로에 기준 심의회)의 까다로운 인증을 받았으며 한국에서는 산업자원부가 주관한 2004년 세계일류 상품에 선정되어 우수한 원료로 평가받기도 하였다.

세계속에서 인정받는 액티브 알로에..

중국에서는 알로에 표준 기준으로 액티브알로에를 선정했다는 어깨 으쓱할 사건도 있었다. 남양알로에 핵심 역량인 연구 노력을 통해 알로에 가공 기술의 과학화를 이룬 결실은 분명, 자사가 커다란 자산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핵심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경쟁사와 차별화 할 수 있는 강력한 남양알로에의 저력이 아닐까? 전 세계 알로에 원료 시장의 40%이상을 남양알로에의 액티브알로에가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액티브알로에의 우수성을 뒷받침하는 실증적 자료라 하겠다. 원료의 생산에서 원료가공, 제품 기획/생산, 판매에 이르기까지 수직계열화를 갖춘 에코넛의 기업 구조는 천연물 시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의 기적적인 성공을 이루어 낼 것이다. 그 첫 단계 즈음에 탄생된 액티브알로의 성공을 보면 쉽게 예상이 되는 일이라 하겠다.

액티브알로에의 효능과 특징

면역수복 능력이 일반 알로에보다 3배이상 뛰어나며 세포 증식효과는 알로에 생초보다 28%나 높다. 면역력을 증강시켜 위장 질환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남양알로에의 제품을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알로엑스골드 액티브알로에 제품은 꼭 음용해봤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만큼 고객들로부터 인정받았다는 뜻이자, 자사에 대한 고객의 믿음을 더해 주는 제품이기 때문이다. 또한, 알로에 성분들 중에는 다른 성분들의 활성을 도와주고 이끌어 주는 지휘자 역할을 하는 성분이 있다는 이론이 있는데, 알로에의 기능을 설명하는 주요한 이론으로 ‘오케스트라 이론’이라 불린다. 알로엑스골드 액티브알로에는 알로에 제품 중에서 지휘자 역할을 하는 제품으로 다른 고기능성 제품과 함께 이용하는 경우 더욱 효과적이다. 이 이론은 ‘제품의 오케스트라 이론’이다. 남양알로에의 액티브알로에가 사람의 건강을 높이는 기능에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을 하듯, 에코넛이 천연물 시장의 지휘자로 우뚝 서, 다른 기업을 이끌어가면서도 지원하여 함께 성장,발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알로엑스골드 액티브알로에 제품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말! 말! 말!

“속이 편안해져요”
“술이 빨리 깨더라구요”
“피부가 좋아졌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남양알로에 알로엑스골드 액티브알로에 음용법

엑상 타입 알로에겔 가공식품 하루 3~4회,
식사 전 공복에 마시면 효과가 극대화 된다.
1회 먹는 양은 30~40g 정도가 적당..
1병에 1000g 가격은 3만 5천원이다.

- 1. 원액 희석 사용
 - 골드를 생수와 1:2로 희석
 - 골드가 진하다고 느끼는 사람, 다이어트효과 상승을 위한 상시 사용
- 2. 기존 음료와 희석
 - 어린이와 성인 구별없이 음용 가능
- 3. 어린이
 - 요구르트 1병과 알로엑스골드 40ml
 - 우유 1컵과 알로엑스골드 40ml
 - 오렌지주스 1컵과 알로엑스골드 40ml



Alo-X Gold by Active - Aloe

Remarkably effective in treatment and prevention of gastroenteric troubles

Alo-X Gold Active - Aloe is...

The best-selling health supplement distributed by Namyang Aloe. It is one of the products that is positioning Namyang Aloe as leading global aloe products and natural products company. In 2000,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MOCIE) began to promote the bio-engineering industry in Korea, and Namyang Aloe focused its research on raw material processing methods that are more effective than standard methods or our indigenous TTS (Time, Temperature, Sanitation) processing method. Namyang Aloe seek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bio-engineering industry and has been engaged in developing natural plant-based pharmaceuticals since the early 1990s. Its efforts finally paid off with the development of Active-Aloe, its new flagship product. The research focused on how to increase the health benefits of fresh aloe plants

grown in an optimal environment. Active-Aloe is premium aloe that has greater cell regeneration and immunity boosting effects than regular aloe. It is the most effective aloe product on the market. It even expedites the absorption and delivery of effective ingredients and, in fact, passed rigorous certification testing by the International Aloe Science Council as a delivery agent of effective ingredients. It was designated as one of Korea’s world-class products by MOCIE in 2004 and acclaimed as the finest quality raw material product.

Active - Aloe recognized by the world...

In China, Active-Aloe was designated as the standard of aloe - an honor that gives us tremendous pride. Our proprietary aloe processing technology was developed through intense R&D, Namyang Aloe’s core competence, and is no doubt an extremely valuable asset. It is through such R&D that Namyang Aloe distinguishes itself from its competitors. The fact that Namyang Aloe’s Active-Aloe accounts for over 40% of the global raw aloe material market is concrete proof of its high quality. The vertically integrated ECONET structure, which engenders raw material production, processing, product planning/manufacturing, and distribution, gives Namyang Aloe an inimitable

advantage in the natural products market, as evidenced by the success of Active-Aloe.

The efficacy of Active - Aloe

Active-Aloe is three times more effective in increasing immunity than regular aloe and has 28% greater cell regeneration than fresh aloe. Its tremendous immunity boosting qualities make it ideal for treatment of gastroenteric diseases. All customers who have ever taken Namyang Aloe products love and trust Alo-X Gold Active-Aloe and the company that provides it. According to theory, one of the substances in aloe plays the role of an orchestra conductor in that it guides and coordinates the action of the other substances. This explains the efficacy of aloe and is called the “orchestra theory.” Likewise, Alo-X Gold Active-Aloe serves as the conductor of other Namyang Aloe products: Its effect is enhanced when taken with other high-quality supplements. This is the “product orchestra theory.” Just as Namyang Aloe’s Active-Aloe performs a role of an orchestra conductor in improving people’s health, we imagine a day when ECONET will stand at the forefront as the conductor of the entire global natural products market and guide and support other companies for mutual growth and development.

Directions

Aloe gel processed food; take 3~4 times daily; most effective when taken on an empty stomach before a meal

- Serving size : 30~40g
- One bottle : 1000g Retail price: 35,000 won

1. How to dilute the original solution

Dilute Alo-X Gold with water at the ratio of 1 : 2
For those who feel Alo-X Gold is too thick
Facilitates weight loss for those looking to lose excess weight

2. How to dilute with beverages

for both children and adults

Children

- 1 bottle of yogurt and Alo-X Gold 40ml
- 1 glass of milk and Alo-X Gold 40ml
- 1 cup of orange juice and Alo-X Gold 40ml



Comments by users of Alo-X Gold Active-Aloe

- “My stomach feels comfortable.”
- “I sober up quickly.”
- “Many say my skin looks fairer.”

또 하나의 에코넷(ECONET) 중심지 레이시(Lacey)

무엇보다 눈에 들어온 것은
벽면에 걸려있는 故 청강 이연호 회장님과
ECONET 총괄 CEO 이병훈 사장님의 사진이었다.



보잉,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들의 본거지인 워싱턴 주의 최대도시 시애틀에서 1시간 남짓 고속도로를 달리면 아름다운 산과 숲으로 둘러 쌓인 자연 친화적 환경을 갖춘 레이시라는 작은 도시에 다다르는데, 이곳에 지난해 이전한 ECONET-West가 자리잡고 있다. 현재 근무하는 임직원은 약 100명으로, 덴버에서 부터 함께 온 직원은 약 20%에 이른다고 한다. Lacey 사옥은 현대식으로 깔끔하게 지어진 단층건물로써 정문에 들어서면 고급스러운 응접실과 안내원의 밝은 미소가 반겨주는데, 무엇보다 눈에 들어온 것은 벽면에 걸려있는 故 청강 이연호 회장님과 ECONET 총괄 CEO 이병훈 사장님의 사진이었다. ECONET-West 가족들은 매일 아침 출근 시 두 분의 얼굴을 보면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이곳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참 뜻 있게 보여졌다. 내부에는 Univera, Oasis, Aloecorp, Unigen-USA 4개사가 함께 사무 및 실험공간을 사

용하고 있었고, 그 외에는 카페테리아, 강당, 물류창고 등이 위치하고 있었다. 자신들의 직무공간에서 열심히 그리고 진진하게 일에 몰두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으며, 특히, Unigen-USA 실험실은 병천에 위치한 Unigen-Korea의 연구시설과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그 동안 양 사간의 공동연구 노력의 결과를 한눈에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전을 하면서 새로운 직원들이 많이 합류하였기에 오리엔테이션 개념의 워크샵이 이틀간 열려 참석할 기회를 가졌다. 첫째 날은 총괄 CEO 이병훈 사장님의 ECONET 개념 및 비전에 관한 연설로 시작되었다. 이날 이병훈 사장님께서서는 우리가 위대한 기업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World's BEST, Economic Engine (\$, Money), Passion 이 세가지 항목을 말씀하셨다. 무한경쟁 시대 속에서 세계최고의 기업이 되어야 하고, 기업의 Economic Engine으로 경제력을 갖추어야 하며, 열정은 지식(Knowledge)이 더해진다면 더욱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여 설명하셨다. 그곳에 참석한 모두는 이병훈 사장님의 열정적인 연설에 몰입 되어 약간은 상기된 듯한 모습까지 보이면서 의미 하나하나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엿보였고, ECONET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면서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기도 하였다. 둘째 날에는 각 사별 직원들의 개인 발표시간이 있었는데, 자신들의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찬 힘있는 연설을 통해 그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고 ECONET을 비롯하여 故 청강 이연호 회장님과 총괄 CEO 이병훈 사장님에게 'Love' 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본인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그들에게서 애사심도 엿볼 수도 있었다.

가족처럼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ECONET-West 직원들 덕분에 미국 속의 작은 한국처럼 느껴질 정도로 편안함이 있는 이곳 Lacey 에도 ECONET의 비전과 의미가 그대로 전달되어 있었

고, 또 하나의 ECONET 중심지이자 세계시장과 연결되는 천연물 산업의 새로운 관문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졌다. 그리고 지역과 인종은 다르지만 ECONET의 구성원 모두가 한 배를 타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가족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소중한 기회였다.

(주)유니젠 경영지원실 홍영주 기자



이날 이병훈 사장님께서서는 우리가 위대한 기업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World's BEST, Economic Engine (\$, Money), Passion 이 세가지 항목을 말씀하셨다.



When you drive south on the highway for about an hour from Seattle, the largest city in Washington and home to world-famous companies such as Boeing, Microsoft and Starbucks Coffee, you arrive at a small city called Lacey. The city, which is in an environmentally-friendly setting surrounded by beautiful mountains and forests, became another new home of ECONET West last year. Currently, ECONET West has about 100 employees, of which roughly 20% relocated from Denver. The company building at Lacey is a modern one-story structure. At the main entrance, you step into a luxurious reception area to be greeted by the bright smile of a receptionist. However, most impressive are the photographs of the late Chairman Yunho Lee and ECONET Chairman Bill Lee. It seemed very significant that the members of ECONET West see the photos every morning when they come to work and are

reminded of the true meaning of the organization they are a part of. In the building, four ECONET companies - Univera, Oasis, Aloecorp, and Unigen USA - have their office areas and laboratories. Also located there are a cafeteria, auditorium, and warehouse. In particular, the laboratory of Unigen USA, which appears almost identical to the research facilities of Unigen Korea located in Byeongcheon, Korea, confirms the accomplishments of joint research efforts to date.

It was exciting to see that every member of the staff was devoted to their work and focused on performing their responsibilities. Since the relocation, many new employees have joined ECONET companies. To help them get acquainted with the company, a two-day orientation workshop was held, and I was fortunate to have the opportunity to attend. The first day kicked off with a speech by Chairman Bill Lee on the concept and vision of the ECONET. In the speech, Bill Lee stressed three requirements for us to become a great company: the world's best, economic engine (\$, Money) and passion. He explained that we need to become the world's best company in an era of unlimited competition, we need to have economic strength to be an economic engine, and that passion becomes more powerful when it is supported by knowledge. Everyone was captivated and even inspired by Bill Lee's passionate speech, and it was obvious that they



wanted to understand and absorb every idea. The participants all agreed that the speech gave them a great opportunity to renew the true meaning and value of ECONET, and they expressed their hope to have such occasions more often. On Day 2, the employees of each company made personal presentations. Their speeches were so full of enthusiasm and pride that I could feel their excitement. Their loyalty and devotion is such that they use the word "love" for the late Chairman Yunho Lee and Chairman Bill Lee as well as ECONET.

Thanks to the warm hospitality of the ECONET West staff, the town of Lacey felt very familiar, a bit like Korea in America. I saw that the vision and mission of ECONET had been transferred to Lacey, and that it would become yet another center of ECONET and a gateway to the world market in the natural products industry. I felt reassured that although we are of different races and live in different locations, all of us at ECONET are like one big family in the same boat and sailing toward a common destination.

Another Center of ECONET - Lacey, Washington

By Reporter Jainie Hong, Staff of Unigen Korea

However, most impressive are the photographs of the late Chairman Yunho Lee and ECONET Chairman Bill Lee.



당뇨병에 기인한 망막염과 백내장 예방에 탁월한

블루베리

+ 분포 및 특성

블루베리는 북아메리카가 원산으로 20여종이 알려져 있으며 한국에서도 정금나무, 산앵두나무 등이 있으며 모두 열매로 먹을수 있다. 원예학적인 면에서는 높이가 5m 내외로 자라는 하이부시베리(high bush berry;V. corymbosum)와 높이가 30cm 내외로 자라는 로부시베리(low bush berry;V. angustifolium, var. laevifolium)로 한정된다. 후자는 특히 미국 북동부에서 많이 재배하고 매 3년 마다 볼로 태우면서 가꾼다. 산성토양에서 잘자라며, 염기성과 중성토양에서는 잘자라지 않는다. 번식은 뿌리나누기, 휘묻이, 종자로 하며 주요한 과수의 하나이다. 열매는 거의 둥글고 1개가 1~1.5g 이며 짙은 하늘색, 붉은색을 띤 갈색, 검은색이고 겉에 흰가루가 묻어있다.

+ 주요성분(부위별)

펙틴,식이섬유,미네랄,칼슘,철분,망간,다섯 개의 안토시아닌(델피니딘,시아니딘,멜비딘,페투니딘,페오디딘)에 세개의 당(글로코스,갈락토오스,아라비아노스)이 각각 한 개씩 결합한 형태로 청자색 색소성분인 안토시아닌 색소는 과피에 많으며 15종류의 안토시아닌이 존재하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 식용근거

달고 신맛이 있기 때문에 날것으로 먹기도 하고 잼, 주스,통조림 등으로 만들어 먹기도 한다.



또한 2002. 3. 6일 민원회신으로 식품의 주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 효능효과

열매와 잎의 엑기스는 이전부터 괴혈병과 비뇨기병, 당뇨병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백내장과 야맹



증에 효험이 있으며 특히 당뇨병에 기인한 망막염과 백내장의 방지에 유효하다는 사실이 보고 되어 있다.

블루베리의 효능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 눈의 영양소 - 눈망막의 로돕신 재합성의 활성화를 촉진,암 순응 촉진효과, 백내장, 야맹증망막염에 효험이 있다.
- 모세혈관 보호작용 - 인체 모세혈관의 무름과 침투성을 감소시키고 혈액의 혈소판 응고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
- 비타민 P와 같은 작용 - 항궤양 활성 및 항염증 작용. 블루베리의 성분은 콜라겐을 기본으로 한 결합 조직으로 연골부,힘줄 등을 강화하며 염증,콜라겐을 파괴하는 색소를 저해하여 콜라겐의 합성을 자극한다.

또한 항산화제로써 작용하여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며 차의 탄닌에 가까운 활성이 있다.

- 정장작용 - 장의 기능을 바로 잡아줌(식물섬유)
- 기타작용 - 플라보노이드란 식품에 널리 분포하는 황색계통의 색소로 비타민P 비타민C2라고 불리우는데 항균,항암,항바이러스,항알레르기 및 항염증 활성을 지니며, 독성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생체 내 산화작용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

Bule Berry





Extracts from fruits and leaves have been traditionally used in treating scurvy, urinary diseases, and diabetes.



Blueberry

+ Distribution and features

Native to North America, the blueberry includes about 20 varieties. In Korea, two edible varieties are found: *Vaccinium oldhami* and *Vaccinium koreanum*. Horticulturally, they are categorized as high bush varieties (*V.corymbosum*), which grow as high as five meters, and the low bush varieties (*V. angustifolium* var. *laevifolium*), reaching a height of 30 cm. The latter is largely cultivated in the northeastern United States, where fields are burnt every three years in preparation for planting. Blueberries do not grow well in alkali or neutral soil, preferring acid soil. One of the most popular fruiting plants, blueberry stock is propagated through root split, layering, and seeding. The berries are nearly round, weighing about 1~1.5g. Their skin is dark blue, reddish-brown, or black with a whitish powdery bloom.

+ Key ingredients (by parts)

Key ingredients include pectin, dietary fiber, minerals, calcium, iron, and manganese. Anthocyanin, a bluish red pigment in the form of three sugars (glucose, galactose and arabinose) attached to five anthocyanidins (delphinidin, cyanidine, malvidin, pelargonidin, and peonidin), is highly concentrated in fruit peels. About 15 varieties of anthocyanins are known.

+ Rationales for edibility

Tasting both sweet and sour, they are eaten fresh or made into jam, juice or processed foods. In addition, according to a reply to a government inquiry dated March, 6, 2002, it can be used as a major ingredient in foods.

+ Efficacy and effects

Extracts from fruits and leaves have been traditionally used in treating scurvy, urinary diseases, and diabetes. In addition, they are beneficial for cataracts and nyctalopia. In particular, the extracts are reported to be highly effective in preventing retinitis and cataracts caused by diabetes.

The efficacy of blueberries can be categorized as the following:

- Nutrients for eyes : Promote the regeneration of rhodopsin in retina and efficacious in promoting adaptation to the dark, cataracts, nyctalopia and retinitis.
- Protects capillaries : reduces the weakening and permeability of capillaries and the coagulation of blood platelets
- Functions like vitamin P : is an anti-ulcerative and anti-inflammatory. The ingredients of blueberries aid collagen-based connective tissues, by reinforcing joints and tendons and impeding inflammation and collagen-destroying pigments, thus promoting creation of collagen.

Moreover, as an anti-oxidant, it removes harmful free radicals, and thus, is similar to tannin found in tea.

- Improving intestinal disorders: Corrects intestinal disorders (dietary fiber)
- Other functions: Flavonoid, a yellowish pigment abundant in foods, is called vitamin P or vitamin C2. Toxin-free, it has anti-bacterial, anti-cancer, anti-viral, anti-allergic and anti-inflammatory properties. It is effective in reducing oxidation in the human body, which is a cause of every disease.



글 - 알로콰
영업 & 마케팅 월트 존스



ECONET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또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천연물, 특히 알로에에 대한 나의 애정이 ECONET 가족과 알로콰에게 커다란 강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할머니는 유타 지역의 개척자의 딸로 태어나셨고, 할머니의 어머니로부터 여러가지 종류의 약초를 재배하고 손질하여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름에 할머니를 방문하면 꼭 시간을 내어 각각의 약초에 대해 어떻게 재배를 하고, 우리의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나에게 큰 자극이 되었으며, 1976년 나는 약초 전문 회사로 잘 알려진 유타에 소재한 Nature's Way의 마케팅 담당 이사가 되었습니다. 후에 나는 그 회사의 지역 영업 본부장이 되었으며, 故 John R. Christopher과 함께 미국과 캐나다 전역을 순회하며 약초 손질 및 이용 방법에 대해 강연을 할 수 있는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비록 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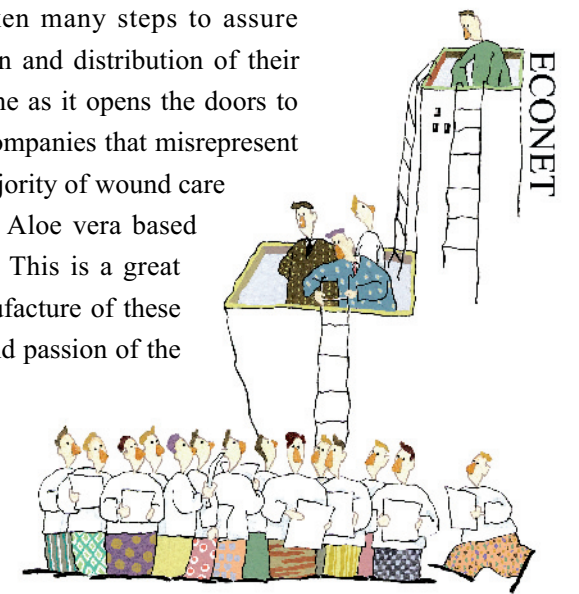
단 산업 분야에서 수년간 일했던 즐거운 경험도 있고, 잠시 압연강의 경영을 도와주었던 적도 있지만, 결국에는 천연물 산업에 대한 열정으로 인해 나는 다시 Nutraceutical Corporation라는 회사를 통해 이 분야로 복귀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나의 영업 스킬 뿐만 아니라 유통을 위한 물류, DB 관리에 대한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시장 전체를 수직적으로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Nutraceutical에서 Specialty Category 담당 사장으로 재직한 후에는 그 회사를 떠나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Natrol의 계열사인 Pure Gar의 사장으로서 원료 및 OEM 생산의 경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나는 마늘과 카바카바(kava kava)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식물 및 약초의 재배, 생산, 부가적인 특성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지식과 공부에 대한 나의 욕구는 이것으로 충족되지 않았고, Carrington Laboratories가 전액 투자하여 설립한 Caraloe의 사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cGMP 규정, 의약품, 화장품 공식집, 확대 OEM 생산 등에 대해 많은 지식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이곳 알로콰에서 내가 오랫동안 널리 존경해마지 않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알로에 산업, 더 나아가서 천연물 산업 전체라는 것이 커다란 도전과 변화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식품의약품국 (FDA)는 건강 보조 식품에 대해 cGMP 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美연방통상위원회 (FTC)는 회사들이 제품의 홍보 및 유통시 그릇된 정보나 사실을 오도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여러 단계의 조치를 취했으며, 이제 품질 보증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는 품질 개선, 과학 선진화의 계기가 되고, 그릇된 정보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부실 기업을 근절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미 대다수의 상처 치료 의약품 제공업체들이 알로에를 인정하였으며, 많은 이들이 아직 인식은 못하고 있지만 알로에 기반의 히드로겔은 미국 병원에서 히드로겔 처치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 같은 의약품 생산시 우리의 알로에를 하나의 선택안으로 자리를 굳히게 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입니다. 나는 이 같은 기회와 ECONET 가족이 보유한 품질, 능력, 애정, 열정은 “자연의 혜택을 인류에게” 제공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병훈 회장님께서 참으로 올바른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모두가 “뜻을 올리고 순항”하여 훌륭한 제품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인류가 더 나은 건강과 생산적인 삶을 더 오랫동안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여정을 제시하였습니다.

I am excited and honored to be asked to join the Econet family! My love of natural products and Aloe vera in particular, I hope, will become a great asset to the Econet family and Aloecorp in particular. My Grandmother was a daughter of a Utah pioneer and she learned from her mother, how to grow, prepare, and use many types of herbal medicines. When we would visit her during the summer she always took time to explain each plant and how it grew and how it was used to keep us healthy. She was a great inspiration to me and I started in 1976 as Marketing Director for a well known herbal company, Nature's Way in Utah. I later became a Regional Sales Manager with them and I was honored to travel throughout the US and Canada giving lectures on how to use herbal preparations with the late John R. Christopher. Although I have had the wonderful experience to also work in the high tech industry for many years, and even helped run a salt mine for awhile, my passion for the natural products industry drew me back to work for Nutraceutical Corporation, where I was able to use not only my skills in sales, but also in logistics for distribution and in database management. I wanted to learn the entire vertical market so after becoming President of Specialty Category at Nutraceutical, I left to run a raw material and contract manufacturing company as President of Pure Gar, a division of Natrol, Inc, in California. I was able to learn a lot in the farming, production, manufacturing, and value added properties of many vegetable/herb products, including garlic and kava kava. Still hungering for more knowledge and training, I took a position with Carrington Laboratories as President of Caraloe, Inc, a wholly owned subsidiary. Here I learned a lot about cGMP compliance, medical devices, cosmetic formulary, and expanded contract manufacturing.

Now I am undertaking my newest opportunity with a group of people that I have had the deepest respect for many years here at Aloecorp. The aloe industry, in fact the natural product industry in general, is about to go through its greatest challenges and changes. The FDA has announced that we will have a cGMP regulation for dietary supplements, FTC has taken many steps to assure companies do not make false or misleading statements in the promotion and distribution of their products, and quality programs are now required. This is an exciting time as it opens the doors to improved quality, better science and it will weed out many of the poor companies that misrepresent the products they provide. Aloe vera has already been accepted by the majority of wound care medical providers and although many do not realize they are using it, Aloe vera based hydrogels are the most popular in hydrogel treatment in US hospitals. This is a great opportunity for us to establish our aloe as the one of choice in the manufacture of these medical devices. I see this opportunity and the quality, capability, love and passion of the Econet family as a great way to “bring the best of nature to mankind”.

Yes, Bill Lee is correct in his vision, he has set the course for us all to “set sail” and create not only great products but a way for mankind to make an adjustment for better health and longer more product life.



By Walt C Jones, VP Sales & Marketing / Aloecorp / USA

신 화 범

미국 워싱턴주 상원의원



정희경 이사장을 알고 지낸 지는 여러 해 되었으며 여러가지 행사에 함께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 몇 년 전에 정 이사장은 아들인 이병훈 사장을 필자에게 소개하면서 미국 현지 법인을 모두 한 곳으로 이전할만한 지역을 물색 중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의 본고장인 워싱턴주가 떠올랐다.

이병훈 사장은 유니베라의 새로운 보금자리에 대한 비전을 설명했고, 나에게 즉시 강한 인상을 남

겼다. 그는 “천연의 공기와 채광, 식물원, 자연속의 산책로 등의 환경 구성 요소를 종합적으로 갖춘 자연에 둘러싸인 곳”으로 회사를 이전하고 싶다고 하며, “유니베라의 목적은 각각의 법인이 ‘건강과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평화적이며 발전적인 근무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말을 듣자 유니베라를 위해서는 워싱턴주가 안성맞춤이라는 확신이 더욱 강하게 들었다.

필자는 이병훈 사장이 천연물 산업에서 발휘하고

있는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 유니베라가 생산하는 제품은 자연에서 추출한 최고의 물질에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인류의 삶을 진정으로 증진시키고자 한다. 나는 이병훈 사장의 리더십이 좀 더 나은 세상을 실현하는데 기여한다고 자신한다. 자연에 대한 그의 사랑은 인류의 행복에 대한 그의 헌신과 결합하여 유니베라의 초석을 이루고 있다. 이 같은 헌신적인 노력은 전세계 유사한 기업에 훌륭한 Role model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필자는 여러 현지 단체와 협조하여 몇몇 후보지를 조사하였고, 2003년 3월 정희경 이사장과 이병훈 사장이 워싱턴주를 방문하였을 때 현지 법인이 임시로 이전할 수 있는 장소와 영구적인 사옥 건설을 위한 장소를 다양하게 소개할 수 있었다. 또한, Gary Locke 워싱턴 주지사, Brad Owen 부주지사, 워싱턴주 통상 및 경제 개발부의 담당자와의 회의도 주선했었다.

이 방문은 이병훈 회장이 유니베라의 이전 대상으로 워싱턴주가 적지라는 확신을 갖도록 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수려한 자연 환경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았다. 워싱턴주가 직원들의 근무 환경뿐만이 아니라 회사를 경영하기에도 훌륭한 여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유니베라에 보여주어야 했다. 이를 위해 Thurston County, Lacey市, Thurston County의 경제 개발 위원회는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이병훈 사장을 비롯한 유니베라의 임원들은 정부내 모든 직급의 담당자가 건설적이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던 점, 이 정도 규모의 회사 이전시 흔히 직면할 수 있는 관료주의적인 자세를 볼 수 없었던 점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마침내 2004년 1월 14일 수요일, 워싱턴주 Lacey市가 유니베라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고 발표되었다. 회사 이전의 제1단계는 가건물로 임시 이전을 하는 것이다. 일단 이것이 완료되

자연에 대한 그의 사랑은 인류의 행복에 대한 그의 헌신과 결합하여 유니베라의 초석을 이루고 있다.

고 나면 유니베라는 세계적 수준의 최첨단 사옥을 임시 시설에서 약 1마일 거리에 있는 40 에이커(약 5만평)의 대지에 착공할 예정이다. 영구적인 사옥 단지에는 최신식의 실험실, 물류 창고, 유통 및 생산 시설, 기타 필요한 건물 등이 위치할 것이며, 완공시까지 최고 3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개발 및 해외 무역 분야에서 수년간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필자로서는 유니베라가 천연 자원, 훌륭한 인적 자원, 기업 활동에 우호적인 정부 관리 등 워싱턴주의 진정한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한 것을 매우 뿌듯하게 생각한다. 워싱턴주가 유니베라의 높은 기준을 만족시켜 워싱턴을 이전 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어서 흐뭇했다.

필자는 작년 12월 10일 임시 시설로의 이전을 기념하는 오프닝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행운이 주어졌다. 행사는 워싱턴주의 고위 관리, 유니베라측의 고위 인사, 주 시애틀 한국 총영사관의 대표, 워싱턴주의 한인 교포 등의 참석하에 매우 성대하게 치러졌다. 오프닝 행사는 필자와 유니베라의 꿈을 실현하는 행사였다. 유니베라가 워싱턴을 선택하여 너무나도 기쁘고, 유니베라의 Lacey 이전 결정을 계기로 더 많은 기업들이 워싱턴주로 이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유니베라의 이전은 워싱턴 주민이 친절하고 우호적이며, 세상에서 가장 빼어난 자연 환경속에 자리하고 있으며, 전 세계 온갖 형태, 규모의 사업을 환영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다.



Senator Paull H. Shin

United States Senator of Washington State

I have known the Honorable Helen Chung for many years and have worked with her on many different occasions. Several years ago, she introduced me to her son, Bill Lee, and indicated that his company was in search of a location to put all of its U.S. operations under one roof, my home state of Washington immediately came to mind.

Mr. Lee immediately impressed me with his vision for a new home for Univera. He said that he wanted to find a new home for his company that was, "...nestled in nature that integrates environmental components, such as natural air

flow, natural lighting, botanical gardens and nature walking trails." He went on to say that, "Univera's goal is to create a peaceful and progressive work atmosphere that exemplifies what each company stands for?health and wellness." These statements convinced me even further that Washington was the place for Univera.

I commend Mr. Lee for his leadership in the field of nature based products. The products created by Univera take the best from the world of nature and combine it with high technology, resulting in products that truly enhance human life. I strongly

believe that Mr. Lee's leadership in this field makes the world a better place. His love of nature, combined with his dedication to the welfare of humanity guides all the Univera does. I have every reason to believe that with their dedrole model for similar companies around the world.

Working with several local organizations, I surveyed several sites and when Mr. Lee and Mrs. Chung visited in March of 2003, we were able to show them a variety of locations for both a temporary location and the permanent campus. On this visit, we were able to set up meetings with then Governor Gary Locke, Lt. Governor Brad Owen, and state officials from the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Community, Trade, and Economic Development.

This visit went a long way towards convincing Mr. Lee that Washington was the place for Univera. However the beautiful setting was not enough, we needed to show Univera that Washington was a good place to do business, in addition to being a wonderful environment to work in. Through incredible cooperation from Thurston County, the City of Lacey, and the Thurston County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we were able to do just that. Mr. Lee and other executives at Univera commented to me several times about the willingness of the various levels of government to work constructively with them and cut through the red tape some would assume would be a part of a large complicated move like this.

On Wednesday, January 14, 2004, the announcement was made that Lacey, Washington would be the new home of Univera. The first stage of the move was a relocation to an interim facility. Once this move was accomplished, Univera would then set out to design and build a world-class, state-of-the-art campus on 40 acres, just one mile from the interim facility. The permanent campus will include cutting-edge laboratory facilities, warehouse, distribution and

production capabilities, as well as other buildings as needed. It is estimated that the permanent campus may take up to three years to complete.

Having been active in economic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trade issues for many years, I was very pleased that we were able to showcase our state in such a way the Univera realized the value of our state's natural resources, our tremendous human resources, and the business friendly attitude of all levels of government. I was pleased that our state was able to meet with Univera's high standards and that they chose to come to Washington.

I was lucky enough to be able to attend the grand opening of the temporary facility on December 10th of last year. It was an amazing event, attended by state and local officials, dignitaries from Univera, a representative of the Korean Consul General in Seattle, and members of Washington's large Korean American community, among others. This event was the realization of a dream for me and for Univera. I am so pleased that they chose Washington and I hope that Univera's decision to come to Lacey can be a beacon for other companies wanting to move to Washington. This move shows that we are a friendly people, living in one of the most spectacular natural environments in the world, and welcome businesses of all shapes and sizes and people from around.



His love of nature, combined with his dedication to the welfare of humanity guides all the Univera does.



소리없는 내조, 그 끝은 창대하리라~

알로콧 생산관리 / 지원팀 (Operation Management Team)

“꿈을 함께하는 행복한 일터”로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 직원들의 사랑과 열정으로 일으킨 알로콧!

알로콧은 지난 16년동안 크고 작은 수난과 역경을 이기며 마치 멈추지 않을 것 같은 기관차처럼 달려왔다. 그건 오로지 모든 직원들의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라는 연료가 있었기에 가능한 신화창조가 아니었을까? 이제 지난 시절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10년~ 20년을 구상해야 할 시기가 도래한 바, 외부적으로는 알로에 산업의 선두주자로서의 흔들림 없는 위치와 내부적으로는 효율적인 직무수행 및 “꿈을 함께하는 행복한 일터”로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 알로에 생산은 우리가 접수한다!

알로콧 전 부서는 기술력 향상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생산성 향상, 고품질 유지 및 신제품 개발 그리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하여 현재 알로에 원료시장의 거센 변화와 도전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있다. 그 가운데 뒤에서 말없이 내조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생산관리/지원팀이다. 생산에 있어서 어머니같은 존재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터이다.

➔ 생산관리/지원팀의 새로운 변화!

신.구 조화의 구성원, 새로운 생산기술의 도입, 제 조담당 이사 (Evan Moilan)의 영입 그리고 식물줄 모르는 열정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한 점 흐트림이 없다.



멕시코 농장과 공장으로부터 텍사스 공장까지 일련의 생산과정에 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는 동시에 영업과 회계부에 필요한 자료와 분석표를 제공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이란 많은 시간과 고민없이 이루어질수 없는 일이지만 모든 구성원들의 일에 대한 엄청난 욕심으로 충분하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자부한다. 서로 자신이 하겠다고 해서 가끔씩 교통정리를 해주는게 흠이라고나 할까...

➔ 알로콧의 어머니...

아이들이 균형있게 자라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혹은 바른길로 가게끔 혼도 내가며 가정의 경제를 동시에 꾸려나가려는 어머니를 연상시키면 바로 그게 우리 생산관리/지원팀에서 볼 수있는 모습이자 알로콧의 어머니 상이다.



➔ 생산관리/지원팀원들의 말! 말! 말!

1. Joseph Kim (김수겸) OMT Leader

내사전에 PO (purchase order-물품구매의뢰서) 없는 구매는 절대 있을 수 없지! 예산관리에 대해선 누구에게도 한치 양보가 없습 오버!

2. Juan Saldana (환 살다냐) Plant Manager

그렇지만 생산에 당장 필요한 재료는 구매할수 있게 융통성을 줌... 텍사스 공장 생산은 제 손안에 있지요.

3. Blanca Cortez (블랑카 코르테즈) ISO team leader

공정법에 준수되지 않은 생산은 인정할 수 없다구요. 모든 공정의 철저한 서류화는 내 차지.

4. Esmeralda Yniguez (에스메랄다 이니게즈) Inventory Manager

흠, 재고관리가 이제 제법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요. Joseph으로 부터 칭찬 한번 들어보고 싶어.

5. Rosa Ontiveroz (로사 온티베로즈) Production Scheduler

지난 10여년을 해온 일이지만 여전히 생산스케줄을 짜고 Batch report를 대할때마다 매번 긴장하지요.

6. Ruby Garza (루비 가르자) Office Clerk

제일 신참내기랍니다. 일 배우는게 너무 즐거워요. 한 가족이 된게 자랑스럽답니다. 아직 싱글이에요~

글 - 미국 알로콧 생산관리부 김수겸 기자

Behind-the-Scenes Assistance... for a Grandiose Finale ~

Operation Management Team, Aloecorp



We wish to function efficiently and create
“a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goals,
dreams and happiness.”

Written by Joseph Kim, Operation Management Team



Aloecorp - Thriving thanks to the dedication and enthusiasm of its staff members!

Despite countless twists and turns, Aloecorp has rushed non-stop and at full speed for the past 16 years. Such a legendary achievement must have been possible because it was fueled by the heartfelt dedication and enthusiasm of the entire staff. Now it is time to draw a blueprint for the next ten or twenty years while at the same time, reflecting on the past. Externally, our goal is to focus all our capabilities on solidifying our position as the leader of the aloe industry while, internally, we wish to function efficiently and create “a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goals, dreams and happiness.”

We focus on aloe production!

Every department at Aloecorp proactively copes with the dynamic changes and challenges currently taking place in the raw aloe market by improving productivity, maintaining high quality control, developing new products and marketing aggressively, all of which is backed by improved technology and smooth communication. Behind all these actions taking place on the front line, the Operation Management Team is like a silent wife. When it comes to production, there’s no doubt we play the role of the mother.

New change at Operation Management Team!

Harmony between new and experienced staff members, introduction of new production technology,

Director of Manufacturing recruit Evan Moilan and inexhaustible dedication are fully aligned to create synergy effects.

Providing data and analysis to sales and accounting as well as collecting all data on a series of production processes, ranging from a plantation and factory in Mexico to a factory in Texas requires tremendous amounts of time and effort. I am proud to say that all issues are meticulously handled, thanks to everybody’s enthusiasm for work. The only problem is that I sometimes need to play referee because people argue about wanting greater responsibility.

A mother to Aloecorp...

In a family, the mother not only manages the household budget, but also looks after her children. She sees that they grow up to be well-rounded individuals and sometimes metes out discipline. This is the role of the Operation Management Team and the image of a mother to Aloecorp.



Remarks by Operation Management Team Members

- 1. Joseph Kim, OMT Leader**
A purchase without a purchase order is never acceptable! I can’t budge even an inch as far as budget control is concerned! No exceptions!
- 2. Juan Saldana, Plant Manager**
Could you please be a little bit more flexible so we can at least procure materials that are immediately needed for production?
Production at the Texas factory is in my hands.
- 3. Blanca Cortez, ISO team leader**
I cannot tolerate production that is not in compliance with the processing manual.
I am in charge of documenting every process.
- 4. Esmeralda Yniguez, Inventory Manager**
Um... inventory management seems to be fairly organized now.
I surely wouldn’t mind hearing some compliments from Joseph.
- 5. Rosa Ontiveroz, Production Scheduler**
Although I’ve been doing this work for ten years, I always give my full attention to setting up production schedules and working on batch reports.
- 6. Ruby Garza, Office Clerk**
I’m the newest around here, and I really enjoy learning new information every day. I’m proud to be a member of this family. By the way, I’m still single!



한마디로 똑똑하다...^^

글 - 첫번째 칭찬주인공 (주)남양 이재현 주임연구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더니 지난해에 (주)남양 생산기술팀 전영숙 사우께서 부족한 저를 첫번째 칭찬 주인공으로 추천해주셔서 칭찬의 힘으로 좋은 습관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제가 많은 좋은 사우들중에서 한 사람을 선정하자니 쉽지가 않군요.. 고민과 고민끝에 제가 선정하게 된 이분은 바로 (주)남양알로에 생명과학연구소에 김진완 전임 연구원입니다.

알고보면은...

똑 부러지고 야무진 얼굴에 한마디로 똑똑하다! 생명과학연구소에 학술정보팀 팀장으로 CAP(알로에 연구)관리와 전반적인 학술업무를 담당하며, 직원들이 식품, 화장품, 학술까지 필요한 자료가 있을 때마다 달려가 재차 물어봐도 짜증내지 않고 원리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시는 자상한 면까지 겸비한 진정 멋있는 주임연구원입니다.

내가본 그는..

처음에 남양알로에에 입사했을 때 낯설은 사투리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걱정해주고 생각해주는 친숙한 어투로 멋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개인적인 상담까지~~ 남을 배려해주는 속이 깊은 친구이자 동료입니다.

가정에서는...

아직 토끼 같은 아이들이 없어서 진정 유부남으로 보이지 않지만, 누구보다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는 애치가입니다. 집에서 빨래와 설거지, 청소를 도맡아 하는 남편 파출부를 자청하는 착한 남편입니다. 게다가

똑 부러지고 야무진 얼굴에
자상함 까지 겸비한 진정 멋있는 남자!



▲ 김진완 전임 연구원
(Jinwan Kim)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지난 번에는 잘 닦이는 스팀 청소기까지 구입하였다고 하니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일등 남편이지요 ^^

이제 군대도 제대하고 진정한 사회인으로 거듭나는 김진완 전임연구원, 앞으로도 건강하고 남양알로에의 힘찬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힘을 보태는 멋진 남자가 되고 개인이 바라는 소망 꼭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The Second Runner - Let's Praise Supervisor Jinwan Kim

Written by the first runner, Jaehyun Lee, Senior Researcher at Namyang Company

There is a saying that "People behave according to where they are placed." Ever since Youngsuk Jeon (Production Technology Team, Namyang Company) recommended me as the first runner for "a Relay of Praises" (although I had many flaws), I have acquired better habits thanks to the power of praises and compliments. Now, it's my turn to choose the second runner. This is a very tough job because there are so many wonderful colleagues. After pondering over this decision for a long time, I chose Jinwan Kim, a senior researcher at the Life Science Research Institute of Namyang Aloe.

When you get to know Jinwan...

He is basically an intelligent person with a firm demeanor!

As the Academic Information Team Leader at the Life Science Research Institute, he is in charge of CAP (aloe research) management and overall academic research affairs. No matter how often people run to him asking for data on foods, cosmetics or science, he is never annoyed. He always explains the answer step-by-step, beginning from the basic principles. He is truly an outstanding senior researcher, who also happens to be kind and attentive.

When I first met him...

When he first began working at Namyang Aloe, I had difficulty getting used to his regional accent. Now, however, I think his accent sounds considerate, caring and friendly. When anyone

has problems or worries, he is the right person to talk to, even when it comes to personal matters. He is a good-hearted colleague and friend, who really cares about others.

At home...

Although he doesn't seem like the true head of a family since he has no kids yet, he is a devoted husband who loves his wife more than anything. He is a wonderful husband at home, volunteering to do domestic chores, such as laundering, dishwashing and cleaning. Moreover, according to his colleagues, he recently purchased a highly-effective steam cleaning machine. He is, no doubt, the number one husband!

Jinwan, you have now completed your military service, and are ready to set forth in the world. I hope you'll always be the same fantastic guy-You are someone who gives his all so that Namyang Aloe can reach the next level.

All the best to you and your family!





남 양

세계 최고의 천연물 제조전문기업으로 가기 위한 문화

남양은 ECONET의 일원으로 세계 최고의 천연물 제조전문 기업으로 발돋움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좋은 문화 정착”이라는 Culture Code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좋은 문화 만들기 두 가지의 목표를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첫번째 조직 화합의 문화(ex:천렵, 동호회 활동등)가 있다..

따뜻한 봄이 지나고 초여름이 시작할 무렵이면 남양의 임직원들을 포함한 모든 사원들은 회사 근처의 조그만 냇가 옆에서 천렵을 즐긴다..

자연을 벗으로 이날만큼은 서로가 같이 웃으며 서로의 생각과 고충을 털어놓는 자리라는 의미가 가장 크지만 무엇보다도 남양이 하나가 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이다.

두번째 회의문화의 변화다.

먼저 남양에서의 회의를 하면 회의시간이 너무 길다는 인식이 많았었다

회의 문화의 변화는 늘 추구해 오고 있었지만 인식만 따를 뿐 실천이 어려웠었다.

하지만 현재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회의시간의 단축 및 회의일정 사전 통보 외에 조기출근으로 한시간 회의 등 아직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씩 조금씩 회의 문화가 변화됨을 느낄수 있다는 말이 이제는 몇몇이 아닌 모든 사원이 느낄 수 있도록 변화의 모습을 기대해 보며.

현재 위의 두 가지 모두 실행되고 있는 문화지만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고 개인 뿐만 아니라 남양도 같이 발전할수 있는 문화가 되기를 바란다.

글 – (주)남양 생산기술팀 전영숙 기자

Namyang Company

A cultural code for the world's best natural product manufacturer

By Reporter Youngsuk Jun,
Production Technology Team / Namyang Company / Korea

As a member of ECONET, Namyang Company has established its own Corporate culture “Internalizing Good Culture,” implemented to reinforce its aspirations and boost efforts to become the world's best natural product manufacturer.

“Internalizing Good Culture” aims at two goals.

The first goal is fostering a culture of organizational harmony (ex: river fishing, club activities, etc.).

When warm spring days are nearly over and early summer begins, the entire staff of Namyang Company enjoys fresh-water fishing at a stream near the office.

The event is significant as it is the time for everybody to share laughter as well as troubles while communing with nature. However, the most meaningful reason: everyone at Namyang Company has the opportunity to unite together as one.

The second goal is changing the meeting culture.

Many have felt that Namyang Company meetings last too long.

Although we tried to change the meeting culture and came up with a few ideas, putting thoughts into action was challenging.

However, we can now witness some slight changes.

In addition to shortening the duration of meetings and announcing meeting schedules in advance, a one-hour meeting has been arranged before regular working hours so that people can come to work early. Although changes may not be fully realized yet, we hope that not just some, but every staff member feels that the meeting culture is changing little by little.

The above-described two initiatives have already been implemented. Nonetheless, we hope they are promoted further, creating a culture in which Namyang Company as well as individuals can achieve growth.

러시아의 반야

러시아의 '반야(banya)'는 아시아의 대중 목욕이나 유럽의 사우나 문화와 비교해서는 안된다. 반야는 인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차이점이 있다. 반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베닉(venik)이라고 불리는 마른 나뭇가지로, 몸에 어느정도 온기가 오르면 이 나뭇가지로 몸을 사정없이 때린다. 중세의 외국인들은 러시아의 반야에 들어가는 일을 “목욕이 아니라 야만적인 고문”이라고 생각하곤 했다. 뜨거운 스팀 열기속에서 베닉으로 몸을 두들기다 보면 한번 맞을 때마다 세상이 끝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것이다. 그렇지만 두드림이 끝나고 나면 마치 재탄생이라도 한 것 같은 희열을 느낀다. 반야를 통한 이 놀라운 쾌감은 몸 깊숙이 오랫동안 머무른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러시아 반야의 효능은 전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것이다.

예전에도 그랬듯이 러시아 연방을 찾는 외국 탐험가들은 “미지의 땅”에 대한 경험담을 일지에 기록한다. 그렇지만 러시아의 반야를 직접 체험해보지 않고도 과연 러시아 민족을 제대로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 프랑스, 미국, 캐나다, 호주로 이주한 러시아인들도 모스크바에 있는 반야와 똑 같은 방법으로 지어진 반야에서 항상 마음을 훈훈하게 할 수 있다. 반야의 이 같은 매력은 널리 인정받고 있다.

반야는 러시아 생활 양식에서 가장 오래되고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이다. 이의 유래는 암흑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현재도 그 당시의 방식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러시아의 옛 전설에서도 볼 수 있듯이, 러시아에서는 손님을 초대하게 되면 일단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는 반야로 안내했다. 오늘날에도 반야에서 비즈니스가 많이 이루어진다.

‘반야’의 어원은 라틴어의 “발네움(balneum)”으로, 이는 “고통을 쫓아낸다”라는 뜻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반야에서 영혼을 정화시키고 질병과 악을 뿌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본래 반야는 대개 호수나 강 기슭 등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 통나무로 지었다. 그 때와 비교해 반야의 현재 시공 방법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단지, 자연의 호수가 없는 도시에서는 찬 물을 담아두기 위한 작은 욕조나 목조 욕탕을 만들 뿐이다.

반야의 중앙에는 돌로 빙 둘러 쌓인 화로가 있다. 이 안에 불을 지피 돌을 뜨겁게 달구고 그 열로 욕실을 데운다. 돌이 붉은 빛이 되도록 열에 달아오르면 반야에 들어가도 된다는 뜻으로, 사람들은 이 때 옷을 벗고 옛 절차를 따른다.

증기실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물로 씻기는 하지만, 머리카락은 적시면 안 된다.

건조한 머리카락은 두상을 열기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반야를 처음 해보는 초보자라면 머리에 양모 모자를 쓸 것을 권고한다.

증기실에는 4-5단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계단 같은 구조물이 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뜨겁고 열기가 심하다. 온도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돌에 물을 얼마나 뿌리느냐에 따라 변하지만, 단계가 높아질수록 가장 깨끗하고 강건한 사람만이 버틸 수 있다. 보통의 러시아인이라면 섭씨 100도 정도면 충분하지만 그 정도로는 턱도 없다고 툄툄대면서 호기를 부리는 사람이 늘 있기 마련이



‘반야’의 어원은 라틴어의 “발네움(balneum)”으로, 이는 “고통을 쫓아낸다”라는 뜻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반야에서 영혼을 정화시키고 질병과 악을 뿌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 신기한 것은 “더 뜨겁게 줌 하지!”하고 소리치던 사람이 우세하여 결국에는 뜨겁게 달궈진 돌에다 물을 더 뿌린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호기는 너무 뜨거워진 기온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반야를 뛰쳐나가 얼음같이 차가운 냉탕으로 뛰어들 때까지 계속된다. 단, 이 때도 역시 냉탕속에 머리는 넣지 않는다. 시베리아 겨울에는 산처럼 쌓인 눈속에 몸을 식히는 반야 베테랑들도 많다.

열을 더 내기 위해서는 일종의 빗자루 모양을 하고 있는 베닉을 사용한다. 마른 나뭇가지 (대개 자작나무, 참나무, 노간주 나무)를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 몸을 때리는데 사용한다. 베닉 나뭇가지의 길이는 40-75 센티미터 정도되고 대개 2-3년생의 나무를 이용하여 만든다. 베닉을 사용하기 전에 끓는 물속에 한번 넣었다 꺼내는데 이 물은 나중에 머리를 감기에 안성맞춤이다. 자작 나뭇가지에 매달린 잎도 효과를 더해 반야의 효능을 보완하는 마사지 효과가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는 피부, 근육, 관절의 혈액 공급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앞에는 여러가지 피부 관련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중요한 오일, 플라보노이드, 산성 물질이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다. 예전에는 러시아 미인들이 반점을 지우기 위해 반야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체내에서 보드카의 독소를 제거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된다.

또한, 반야를 할 때 물 속에 특정 허브를 넣으면 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널리 애용되는 허브는 까치밥 나무, 나무딸기 또는 요즘 유행하는 유칼립투스 잎 등으로 이것들을 서로 섞어서 사용해도 된다. 불을 지피기 위해 사용하는 나무도 마찬가지로인데 나무에 따라 독특한 향을 낸다. 실수로 반야에 적합하지 않은 나무를 고를 수도 있는데 가장 좋은 목재는 참나무이다. 참나무의 나이는 중간 정도가 적당한데 너무 어린 나무는 향은 좋지만 열기가 부족하고, 너무 오래된 고목은 열 보다는 재를 많이 발생시켜 크게 도움이 안된다. 나무 토막은 건조가 잘 되고 단단하고 썩은 부분이 없어야 한다. 나무를 잘못 선택하면 시커먼 연기와 불쾌감만을 초래할 수 있다.

모두 반야를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잘 모를 때에는 의사와 상담을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어린이, 임신부, 심장 혈관 질환 또는 고혈압 환자 등에게는 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심장에 부담이 돼서 이를 이겨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야가 끝나고 나면 달콤한 음료로 갈증을 해소하고 원기를 회복시켜 줄 차례이다. 예전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온 가족이 반야의 휴게실에 모여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도 나누고 웃음꽃을 피우곤 했었다. 전통적으로 러시아 남자들은 꿀로 양조한 술을 마시고 여자들은 꿀물 또는 시원한 음료인 Bread kvass를 마셨다. 여러가지 허브차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허브차는 갈증을 풀어주고 건강에도 좋아서 대개 따뜻하게 마신다. 이외에도 케이크, 쿠키 등을 함께 차려내어 가족 모두, 특히 아이들에게는 즐겁고 흥겨운 잔치가 되곤 했다.

러시아의 반야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몇 시간이고 계속해도 끝이 없을 테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러시아에 와서 직접 체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회사는 아직 반야를 마련하지는 못했지만, 곧 이를 마련하여 여러분들이 러시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초대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

글 - 유니젠 러시아 Litvinov Oleg (리트비노브 올렉)



Russian Banya should not be compared neither with Asian bath nor with European sauna. A Russian one differs with its very extreme influence upon a man. An integral feature of banya is venik (dried twigs) which Russians use to lash their heated bodies with. “It is not a bath, more a kind of barbarous torture!”-used to think medieval foreigners, that occurred to get into Russian banya. Under a furious venik blows in a steam bath they would feel the end was approaching with every slash. But after it they shone with happiness as if they had come to life and got a second chance. Remarkable and extraordinary sensation banya gives deeply impresses for a long time. Thus the fame of healing Russian banya has been spreading over the world.

Like many years ago foreign explorers of the Russian Federation still put in their dairies the experience of the “terra incognita”. But can you know Russian’s nature have not been to a Russian bath? Even immigrated to France, USA, Canada or in Australia a Russian can always warm up his heart in banya, that is built as the same one in Moscow. Such attractive and capturing power of banya is widely recognized.

Banya is the most interesting and the oldest attribute of Russian life style. This tradition remains from dark times and has not altered much. As in old Russian legends a guest should be treated to dinner firstly and taken to banya, so nowadays many business talks take place there.

The word banya derives from Latin balneum, which means “to chase out pain”. Ancestors believed that in banya a human besides a wash have got a spirit cleared, sickness and evils leaved away. So original banya house was to be built of whole logs in beautiful scenery, usually on a bank of lake or river. Since then banya’s design has not changed much, merely in cities for the absence of a natural lake people have to make small basin or a wooden tub for cold water.

In the middle of a banya house there is a fire chamber, surrounded with stones. Inside of it a fire burns, it heating the stones and warming the house. When the stones gotten red-hot people may enter the banya, put off clothes and experience an old procedure.

Before visiting the steam room it is necessary to wash by water, however do not wet your hair. Dry hear will protect the head from the heat. A recommendation for someone new to banya is to wear a woolen cap on the head.

In a steam room there is a kind of staircase of four or five wide stages. The upper the stage the more hot and scorching heat is. The temperature is not constant and may vary by as much as water splashed on the stones, but on the highest stage the most tough and steadfast man can stay. 100 ° c heat is amply to an ordinary Russian but there always will be a desperado guy that will claim the steam is not strong. Strange, but a guy that is calling for “More steam!” usually wins and starts throwing more water about

The word banya derives from Latin balneum, which means “to chase out pain”. Ancestors believed that in banya a human besides a wash have got a spirit cleared, sickness and evils leaved away.

the hot stones. It goes on till the heat is unbearable and everybody falls out of banya into the air and jump in icy water bath, not placing the head under the cold water. In Siberian winter many hardy banya veterans like immerse themselves in a snow bank. After it they return to banya to begin the process again.

To gain much heat is used venik- a kind of broom. It is made of dried branches (usually birch, oak or juniper) to beat about a body. Venik branches are to be about 40-75 cm in lengths and may not be older than 2-3 years. Before using it must be put into boiling water, so the water remains is excellent to wash hairs. The leaves of a birch branches add to experience and provide a perfect massage to complement healing affects of banya. Researches have found that it improves a blood supply to the skin, muscles and joints. In it leaves there are a lot of various essential oils, flavonoids, acids that solve many skin and cosmetological problems. Last centuries Russian pretties used banya affects to get rid of pigment spots. Besides, it much assists in eliminating vodka toxins from a body.

The use of certain herbs in water of banya is thought to magnify the effect of it. Popular herbs used may consist of any combination of any combination of leaves of current, raspberries or eucalyptus that is popular today.

The same is with woods to burn in fire that bring in a unique smoke smell. By mistake you can choose woods that is not suitable to banya, so the best firewood is oak. An oak tree must be of middle age, because a young tree gives a magnificent smell, but lacks heat. An old one also won’t do any good for it makes more ash than heat. Woods must be well dried, firm and not rotten. Wrong woods will be the case of sooty air and feeling bad.

Not everybody can take a banya. If you are not sure in your health it is better to consult a doctor. It is not recommended for children and pregnant, those that suffer cardiovascular disease, hypertension because the heart may not pass the task.

After banya it is the time to quench thirsty and refresh oneself with sweet drinks. In times of old in a banya sitting room there would chuckle gather all the family, young and old, cooled down. Traditionally Russian men drank honey brew, women took honey water or bread kvass (kind of soft drink). Various herb teas are told to be also good. Herb tea slakes thirsty and healthful, and is drank hot. Teacakes, sweets and cookies are usually laid, so for all the family and particularly for children it looks as a joy and fun fiesta.

We may describe Russian banya for hours but the better way is to come and experience it. Though our company still couldn’t afford it we hope soon you will taste Russian culture in our own banya house. Looking forward to treating you.





海南島

꿈과 희망을 해남도에서 그리며...



글 - (주)남양
에코넷기업본부 윤석훈 대리

중국현지법인 방문의 설레임!

(주)남양 ERP팀의 직원 12명이 2005년 3월9일부터 3월12일까지 중국 현지법인을 방문하게 되었다. 전날의 설레임을 뒤로한 채 부시시한 눈을 비비며 아침시계가 하루를 깨웠다. “따르릉...따르릉...앗! 늦었다. 4시30분...” 아침 세안을 할 틈도 없이 옷을 입고 전날 약속을 했던 약속장소로 달려갔다. 이렇게 분주하게 새벽을 시작하여 도착한 인천국제 공항의 아침 해돋이는 우리들 마음속에 저마다 갖고 있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설레임의 시작으로 생각되어 진다. 공항티켓팅을 모두 마치고 저마다 비행기에 탑승하며 서로 주고 받는 말은 누가 비행기를 한 번 더 탔느냐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다. “부아아~~양” 굉음을 내며 비행기가 이륙을 하며 4시간 남

짓하며 도착한 곳은 마치 인천공항을 보는 듯한 중국의 광주공항이었다. 광주공항에서는 해남도 현지법인의 송운섭 대리와 ‘뽀’가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었다. 해남도에서 해구공항으로 가기 위해서 광주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1시간쯤 이동하여 도착하니 해남도 현지법인 한상준 사장님께서 우리들을 반가이 맞이하여 주셨다. 힘든 여로를 뒤로하며 현지법인에서 마련해 주신 장소로 이동하여 저녁을 함께한 후 숙소로 이동하여 하루를 마감했다.

마냥 머물고 싶은 아름다운 해남도!

다음날 아침을 시작으로 해남도 현지법인 사무실을 둘러 현지법인 사장님으로부터 현지법인 소개를 받은 우리는 현지법인 직원들과 사진촬영을 마친 후

현지법인 농장으로 이동하였다. 현지법인 농장은 해구시로부터 자동차로 약 1시간 30분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드디어 말로만 들던 그곳을 가보는구나... 중국 해남도 농장을...”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꼬불꼬불 길을 따라서 현지법인 농장을 들어가는데 작은 알로에 묘목과 마치 국경일 행사를 하듯 줄이 가로 세로 딱딱 맞는 2~3년생 알로에들이 우리를 맞이했다. 우리는 이국적 풍경속에 자라고 있는 알로에 농장을 둘러보면서 저마다 사진을 찍고 현지법인 농장에서 마련해 주신 중국식 국수를 맛있게 먹었다. 점심을 맛있게 마친 후 해변을 따라 세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청피림(세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자연녹지 지대)을 보며 삼아 숙소로 이동했다. 숙소로 돌아온 우리는 모두들 바다를 보기 위해 몸을 이끌고 해변으로 나갔다. 해변에서 두리번 두리번 하는 우리일행은 저마다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과 해변축구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다. 장난아닌 장난끼가 발동된 우리는 해변축구를 하는 일행과 국제경기(A매치)를 시작했다. 축구가 시작된 지 채 5분도 안되어 우리 일행은 저마다 얼굴을 보며 이게 아닌데...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결국 축구경기에 대한 결과는 비밀리에 붙이기로 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전화주세요.)



초심으로 돌아가 느껴본 행복

어느덧 여행을 시작한 지 삼일째 되는 날! 우리는 정해진 일정에 맞춰 오전 일정에 있는 세미나를 시작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점심을 먹은 우리는 오후 일정에 맞춰 해변가로 이동하여 해상스포츠를 즐겼다. 분주하게 시작한 해남도 현지법인 연수를 시작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다. 분주하게 시작했던 이번 연수는 즐거움과 고마움으로 가득하고 행복했던 여행으로 생각된다. 모두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무엇하나 불편함이 없을까 하는 이심전심(以心傳心)의 마음은 우리 ECONET의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이 아닌가 싶다. 아무쪼록 이번 연수에 신경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분주하게 시작했던 이번 연수는 즐거움과
고마움으로 가득하고 행복했던 여행으로 생각된다.



Renewing Dreams and Aspirations on Hainan Island

By Seokhun Yun, Assistant Manager, ECONET Corporate & Shared Service Center, Namyang Company / Korea

High expectations on our visit to the Chinese subsidiary!

A group of 12 members from Namyang's ERP Team visited the Chinese subsidiary from March 9 through 12. The first day of the trip began when I was awakened by the ting of an alarm clock. "It's already 4:30... I'm late!" I barely had time to wash my face. As soon as I got dressed, I rushed to meet the other team members. When we finally arrived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he sun was rising just as excitement about the unknown world to which we were going was stirring in our minds. While proceeding to the gate after checking in at the airport, everybody was bragging about who had the most flying experience. With the roar of the engines, the plane took off. After a four-hour flight, we arrived at Guangzhou Airport, which very much resembled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We were warmly welcomed by Yun-seob Song, an assistant manager at the Chinese subsidiary, and Pi. In order to get to Haikou Airport in Hainan Island, we had to transfer to another plane for a one-hour flight. When we

arrived at Hainan Island, Sangjun Han, the president of the Chinese subsidiary, was waiting for us. We shook off our fatigue from the journey and went to have dinner arranged by the Chinese subsidiary and checked into our rooms. The day had come to an end.

Beautiful Hainan Island beckons us to stay forever!

On the second day, after having breakfast, we visited the Chinese subsidiary office and were briefed on the company by the president. We took a souvenir picture with the staff and went to the Chinese subsidiary plantation, which was located an hour and a half away from Haikou by car. I was finally on the way to the Hainan Island Plantation, the place I had heard so much about. After getting off the expressway, we drove some ways along a winding road. When we stepped into the plantation, we were welcomed by short aloe saplings and 2-3 year-old aloe plants that were lined up perfectly. The aloe had an exotic atmosphere, and we took more souvenir photos. Then, we were treated to tasty Chinese noodles

for lunch before returning to our lodgings in Sanya while viewing the world's only natural green zone. After we returned, we went out to the beach to look at the sea. While roaming on the beach, we ran into a group of people playing beach soccer. We were eager for a bit of action, so we challenged them to an international match. In less than five minutes of play, we were already looking at each other and saying silently "This is not what we intended." The final score of the game is strictly confidential. (If you really want to know, you will have to call me.)

Elated by the wonders of nature

On the third day of our visit, we had a seminar in the morning. After lunch, we went out to the beach and indulged ourselves in water sports. It seemed only hours ago that we had just arrived on Hainan Island, but our trip was already nearing its end. The trip was full of pleasant moments and warm hospitality. We remember it as being cheerful and pleasurable. I think mutual telepathic communication to make the stay comfortable is also part of the ECONET spirit - caring for others. I'd like to thank all of those who went the extra mile to make the visit enjoyable.



The trip was full of pleasant moments and warm hospitality. We remember it as being cheerful and pleasurable.



(주)남양알로에 / Namyang Aloe



1 남양알로에 ECONET Center 입주 및 준공식
남양알로에는 2월 28일 새로이 마련한 성수동 신사옥 ECONET Center로 입주를 마쳤다. ECONET Center는 현대식 건물로 친환경적 이미지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며, 특히, 직원들의 업무 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사회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오는 4월 6일 ECONET 임직원 및 외부 인사를 초청하여 10:30~13:00 남양알로에 ECONET Center 준공식을 갖는다.

The New Namyang Aloe ECONET Center
Namyang Aloe completed its move into the newly built ECONET Center in Seongsu-dong, Seoul on February 28. The ECONET Center, with a modern interior conveying an environment-friendly image, will significantly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of its employees and boost the company image in the eyes of the local community. April 6 marks the date of the opening ceremony for the ECONET Center, which will be attended by the staff of ECONET and invited guests.

2 남양알로에 팀부장 전진대회

2005년 4월 12일 13시 남양알로에 대리점 팀부장 전진대회가 대전 충무 체육관에서 열린다.

남양알로에 구성원으로서의 팀부장들은 이날 한가족으로서의 일체감과 행동의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된 액션을 통해 성공을 확신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회식에 이서 우수 팀부장 시상식, 설계사 자녀 장학금 전달, 화합의 시간으로 구성된 행사를 통해 남양알로에 영업현장의 분위기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움직이는(실행력) 남양알로에 팀부장로의 변신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며 이 분위기가 일반 생활건강설계사에게까지 그대로 전달되기를 바란다.

Rally for Namyang Aloe Team Leaders / Senior Managers

A rally for Namyang Aloe Team Leaders/Senior Managers will take place at Chungmu Gymnasium in Daejeon at 13:00, April 12, 2005. As members of Namyang Aloe, the team leaders/senior managers will demonstrate solidarity and commitment as part of one big family. It will be an occasion to boost their confidence as they work together to attain success.

The opening ceremony will be followed by the presentation of awards to outstanding team leaders/senior managers and scholarships to children of agents. Also planned is an event to promote harmony and unity. The rally will be a significant occasion to build up the spirit of Namyang Aloe's sales front and inspire team leaders/senior managers to transform vision into action. We hope this high-spirited atmosphere is an inspiration to life planners as well.

3 제안제도, Let's의 활성화

남양알로에 임직원들의 제안을 접수하여 실행토록 하는 제도로 Let's가 있다. 시행한지 햇수로 3년차. '제안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기본 정신으로

사내 인트라넷에 별도의 메뉴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직원으로서 회사와 우리의 고객을 위한 업무 혁신은 당연한 것이지만, 눈에 띄지 않던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남양알로에 대리점 운영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 변경 제안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제안되고 또 실제 업무에 반영되고 있다.

Promoting "Let's" - a suggestion program

At Namyang Aloe, there is a program called "Let's", which encourages staff members to suggest and implement ideas. In fact, it has been three years since it was first introduced.

In the spirit of "no limits to suggestions," an exclusive menu is set up on the company intranet to facilitate the program.

A variety of ideas have been suggested and actually implemented, ranging from easily overlooked issues to system modification ideas. These ideas may be constructive to Namyang Aloe agencies or they could be business innovation ideas that benefit both the company and our customers

(주)남양 / Namyang Company

4 남양혁신 NI-6**(Namyang Innovation 6-Sigma) 발대식**

2005년 2월 3일 남양의 NI-6(Namyang Innovation 6-Sigma)를 향한 발대식이 열렸다. NI-6의 운영 목적은 전 직원의 품질 개선마인드 향상과 개선 실천력증대를 통하여 생산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생산역량 강화를 통하여 품질향상과 생산 Process 개선활동으로 원가절감 실현이다. * NI-6의 목표 실행을 위한 사무국조직을 형성(조직원:경영지원팀 김상수 대리, 생산기술팀 정형철 대리, 연구실 김진영 대리, 생산기술팀 김연진 사원)

A Launching Ceremony for Namyang Innovation 6-Sig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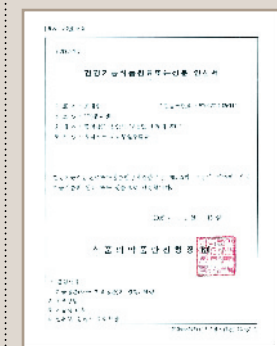
A ceremony for the launch of Namyang Innovation 6-Sigma (NI-6) was held on February 3, 2005.

The objectives of NI-6 are to enhance production capabilities by inspiring positive attitudes and actions of the staff for quality improvement and, based on enhanced production capabilities, realize cost-savings through quality improvement and production process improvement activities.

* Established a Secretariat to implement the NI-6 objectives

Members: Sang-su Kim (Assistant Manager, Management Support Team) Hyungcheol Jeong (Assistant Manager, Production Technology Team), Jinyoung Kim (Assistant Manager, R&D Team), Yeonjin Kim (Production Technology Team)

유니젠 한국 / Unigen Korea

5 천연물 신소재 '유니벅스 & 유니베스틴-K' 개별 기능성 인정 획득

유니젠이 개발한 천연물 기능성 신소재 유니벅스(UniBEX™)와 유니베스틴케이(Univestin K™)가 식품의약품 안전청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 소재로 개별 기능성인정을 획득하였습니다. 유니벅스(기능성인증 제2005-1호) 소재는 대나무잎을 소재로 개발한 기능성소재로 콜레스테롤 및 지질 대사와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소재이며, 유니베스틴케이(기능성인증 제2005-4호)는 황금(黃芩)과 아선약을 혼합한 기능성 소재로 관절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을

인정 받아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번에 개별 기능성 인증을 받은 두 소재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제품화되어 선보일 예정입니다.

Natural product-based new materials UniBEX™ and Uninvestin K™ obtain Individual Functionality Certification

UniBEX™ and Uninvestin K™, natural product-based new functional materials developed by Unigen, obtained Individual Functionality Certifications as health supplement materials from the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UniBEX (Functionality Certification No 2005-1), a functional material developed from bamboo leaves, has positive effects on cholesterol and lipid metabolism and anti-oxidation. Uninvestin K™ (Functionality Certification No. 2005-4) is a functional material developed by combining skullcap and gambir. It has been certified for its efficacy in relieving joint discomfort. These two recently certified materials will be developed into health supplement products.

6 유니베스틴 원물 공급업체 품질관리 중국 현지 실사 실시.

유니젠은 주력 천연물 신소재인 ‘유니베스틴’ 제품의 우수한 품질관리와 안정적 공급 유지 그리고 향후 있게 될 고객사의 생산시설 감사(Customer Audit)을 준비하기 위해 중국에 있는 원물 공급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실사(Vender Qualification)을 4월에 현지에서 실시합니다.

이번 품질관리 실사는 4월 8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며 중국 서안(西安/Xian)의 Xian社, 계림(桂林/Guilin)의 AIGI社 및 장사(長沙/Changsha)의 Phyto Way社 3개 업체에 대해 엄격한 실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품질관리 실사에서는 원물 생산시설 운영관리 현황과 품질관리 운영 현황에 대해 집중 점검하게 되며 유니젠의 조태형 사장, 김동선 수석연구원, 유종하 전임연구원 및 미국 Unigen USA

의 웬웬마 박사(Dr. Wenwen Ma)가 현지를 방문하여 한미 유니젠 양사가 공동으로 실사를 진행합니다.

Vender Certification Planned for Chinese suppliers of source material for Uninvestin

In an effort to maintain strict quality control and a stable supply of Uninvestin, a key natural product-based new material, and to prepare for the Customer Audit, which will be introduced soon, Unigen plans to perform Vendor Qualification inspections on source material suppliers located in China.

The Vendor Qualification process is scheduled for ten days, April 8-18. Three companies - Xian Company in Xian, AIGI in Guilin and PhytoWay in Changsha ? will undergo rigorous screening procedures.

The upcoming Vendor Certification will focus on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source material production facilities and quality control systems. The inspection team, to be formed jointly between Unigen Korea and Unigen USA, will include Unigen Korea CEO Tae-hyung Cho, Senior researcher Dong-seon Kim, Associate Researcher Jong-ha Yoo, and Dr. Wenwen Ma from Unigen USA.

7 제5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



유니젠은 제5기 정기 주주총회를 3월28일(월) 병천 생명과학연구소 1층 강당에서 개최했습니다. 이 날 주주총회는 윤경수 감사의 감사보고와 윤길상 경영

지원실장의 영업보고가 있었고, 조태형 대표이사의 의사진행으로 제5기 (2004.1.1~12.31)의 재무성과에 대한 승인과 임원보수 한도액 승인 및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을 요청한 김석한 사외이사의 사임 승인의 총 3건의 의안이 상정되어 참석 주주들의 동의를 통해 의결되었습니다.

Fifth Regular Shareholders' Meeting Held

Unigen Korea held its fifth regular shareholders' meeting at the auditorium of the Life Science Institute in Byeongcheon on March 28. An audit report and an operation report were presented by Auditor K.S. Yoon and Director of Management Support Office Gilsang Yun, respectively.

CEO Tae-hyeong Cho presented three agenda items for consideration, and all were passed through voting by the shareholders present: an approval on the financial performance in the fifth fiscal year (Jan. 1 ~ Dec. 31 2004), an approval on the ceiling of compensation for directors, and an approval on the resignation of outside director Seokhan Kim, who wishes to resign for personal reasons

미국유니젠 / Unigen USA

8 Unigen USA의 관절 건강 제품 – 권위있는 NutrAward 상 후보로 선정

주요 R&D업체로 생물학적으로 유효한 식물 추출 성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천연물 및 의약품 업체에 공급하는 Unigen Pharmaceuticals, Inc (UPI)는 New Hope Natural Media가 매년 시상하는 NutrAward 상의 2005년도 3개 최종 후보업체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했다. New Hope는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서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는 Nutracon과 Natural Products ExpoWest 컨퍼런스의 후원업체로, NutrAward상의 수상자는 Supply Expo 행사장 548번 부스에서 3월 19일 오

후 3시에 발표된다. 투표는 당일 정오에 마감된다. New Hope Natural Media의 소재 개발 담당 부사장인 Karen Raterman에 따르면 NutrAward상은 전년도에 개발된 혁신적인 영양 성분 및 가장 우수한 성분의 성과를 인정하여 현재 6년째 시상해오고 있다. Raterman 부사장은 “UPI는 금년에 최종 후보로 선정된 3개 업체 중 한 곳으로, 관절 건강과 운동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이오 천연 성분 특허품 Uninvestin® 으로 업적을 인정받았다”고 말하며 Uninvestin® 의 과학적 우수성, 효능, 안전성, 혁신, 시장에서의 잠재력, 시장의 신뢰도 상승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경쟁업체를 물리치고 UPI가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UPI의 레이건 마일스 부사장은 Uninvestin®이 이같이 권위있는 상의 최종 후보로 선정된 것이 매우 영광스럽다고 하며, “UPI는 항상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는 새로운 천연 건강 제품 개발에 항상 자부심을 가져왔다. 소비자가 안전한 천연성분의 관절 건강 대체 제품을 찾고 있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 시기에 이 같은 상의 후보로 선정된 것이 너무나도 뜻 깊다. Uninvestin®은 이전 수상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진정한 수상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UPI의 Uninvestin® 은 NutrAward상의 후보 제품으로 선정되어 Nutracon과 Supply Expo 기간 동안 포스터 전시 세션에 소개될 것이다. NutrAward 수상자에게는 상패가 수여되며 월간 전문지 Functional Foods and Nutraceuticals 에 특집 기사로 소개되고, Nutracon 2006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특전도 주어진다.

Unigen Pharmaceuticals' Joint Health Product Nominated for Prestigious NutrAward

Lacey, WA - March __, 2005 - Unigen Pharmaceuticals, Inc., a leading research and development facility and supplier of proprietary, biologically active plant-derived ingredients to the natural products and pharmaceutical

industries, has announced that it is has been selected as one of three finalists of the NutrAward 2005, presented annually by New Hope Natural Media. New Hope, sponsor of the Nutracon and Natural Products ExpoWest conferences being held March 16 - 20 in Anaheim, CA, will announce the winner at 3:00 p.m. on Saturday, March 19, at Booth #548 on the Supply Expo show floor. Voting will close at noon that day. According to Karen Raterman, Vice President of Content Development for New Hope Natural Media, this is the sixth consecutive year that it is presenting the NutrAward, celebrating innovative evidence-based nutritional ingredients and the best ingredient from the preceding year. “Unigen Pharmaceuticals is one of three finalists in this year’s competition, selected for its patented Uninvestin® bioactive natural ingredient addressing joint health and mobility,” said Raterman. “Uninvestin® was chosen for award consideration among its competition for scientific merit, efficacy, safety, innovation, market potential and ability to increase market credibility.”

“We are extremely honored that Uninvestin® was selected as a finalist for this prestigious award,” said Regan Miles, Executive Vice President of Unigen Pharmaceuticals. “Unigen has always taken pride in producing scientifically-backed, novel natural health care products. During this critical time in history when consumers are looking for natural and safe joint care alternatives, the timing of this award nomination couldn’t be better. We truly consider Uninvestin® to be a winner that will find its place among past award recipients.”

As a NutrAward nominee, Unigen’s Uninvestin® product will be featured during the poster session display taking place during Nutracon and Supply

Expo. The NutrAward winner will receive an engraved award and coverage in Functional Foods and Nutraceuticals Magazine, along with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Nutracon 2006 program.

하이난 알로콧 / Hainan Aloecorp

9 ECONET Mission 선포식 및 2005년도 사업 계획 공유

중국 현지법인 하이난 알로콧은 지난 3월5일(토)부터 3월6일(일)까지 1박2일간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04년 11월에 선정한 ECONET Mission에 대한 선포식 및 2005년도 사업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의 주요 목적은 구성원 상호간의 Communication 강화와 Mission 공유, ECONET 전사원의 사업계획 공유에 있었으며 첫날 농장견학을 시작으로 ECONET Vision집 설명, ECONET Mission 선포식, “신화 창조의 비밀” VCD감상, 2005년도 사업계획 공유 둘째날 외부강사 초빙(위생과 건강관리) 강연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대부분 현장직 임에도 불구하고 열기가 대단했다.

한편 오는 5월 ECONET Culture Code 선정을 위한 2005년도 제 2차 Workshop 예정에 있다.

하이난 알로콧 Mission

- ▶ 세계 제1의 알로에 원료 기업이 되자
 - 우리는 선의의 경쟁으로 무조건 미국 Aloecorp을 이긴다
- ▶ 고객을 하늘로 생각하는 기업이 되자
 - 우리는 고객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와 자연으로부터 최상의 선물인 알로에를 통하여 고객이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봉사한다.

- ▶ 지역 사회와 운명 공동체로서
 - 공동으로 발전하는 기업이 되자
 - 우리는 지역 사회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며 건강, 미용, 환경 보호의 대변인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주도한다.



Declaration of the ECONET Mission and Sharing of the Business Plan

The Chinese subsidiary, Hainan Aloecorp, organized a one-night, two-day workshop from March 5 to 6 for its entire staff to take part in declaring the ECONET Mission, which had been defined in November 2004, and to share the business plan for 2005.

The main objectives of the event were to improve communications between all organization members and inform everyone of the company mission and business plans. The first day kicked off with a field trip to the plantation, which was followed by a presentation on the ECONET vision, declaration of the ECONET mission, a showing of the VCD “Secrets Behind the Creation of a Legend”, and an explanation of the business plan for 2005. The second day featured lectures by outside speakers on sanitation and healthcare. Most of the participants to the lectures were field workers, and they were full of enthusiasm.

The 2nd Workshop for 2005 will focus on defining the ECONET Culture code and is slated

for May.

The Mission of Hainan Aloecorp

- ▶ Become the world’s number one raw aloe company
 - We will compete and win Aloecorp USA in good faith
- ▶ Become a company that truly values its customers.
 - We will strive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the well-being of customers by offering excellent service and the best quality aloe, one of nature’s greatest gifts.
- ▶ Become a company that is part of and grows together with the local community.
 - We will discover the most talented people in the local community and lead its development as a promoter of health, beau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10 CAP 과학 자문 위원회 위원 해남도 방문

1월28일부터 2월1일까지 CAP 과학 자문 위원회 위원들께서 해남도를 방문하였다. “한약과 천연물 산업”에 대한 강의와 토론, 현지법인 농장 등을 방문하고 변화된 모습에 크게 감동하였다.

Members of the CAP Science Advisory Committee Visit Hainan Island

Members of the CAP Science Advisory Committee visited Hainan Island from January 28 through February 1. During their stay, they held a lecture on “Oriental medicine and the natural products industry” and following discussions. They then visited the local plantation and were greatly impressed with the changes.

11 일월만 설계회의 개최



해남성 만녕시에 위치한 당사의 일월만 부지 개발을 위한 설계회의가 지난 2월27일(일)부터 3월3일(목)까지 중국 현지 법인 하이난 만녕 남양 주체로 열렸다.

본사에서 사장님과 윤경수 상무, 심호영 이사, 태국의 설계회사, 싱가포르, 홍콩, 영국의 컨설팅 파트너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으며 설계회의 후 일월만 부지 관할 정부인 만녕시 정부 서기 및 간부들을 대상으로 설계도면 설명회가 열렸으며 매우 만족한다는 의견이었다.



Design Conference for the Riyue Bay Site Held

A design conference to discuss development plans for the company-owned Riyue Bay site in Wanning City was held from February 27 through March 3. The conference was organized by the Chinese subsidiary Hainan Nam Yang and attended by many different parties: CEO Bill Lee, COO K.S. Yoon, and Director Hoyoung Shim from Seoul; a design firm from Thailand; and consulting partners from Singapore, Hong Kong,

and the U.K. After the conference, the design plans were presented to the secretary and senior officials of the Wanning city government, the governing authority of the site, and they won a very encouraging response

12 (주)남양 직원 현지 법인 방문

(주)남양 ERP팀 직원 12명이 현지 법인을 방문하였다(2005년 3월9일부터 3월12일)

현지 법인 사무실을 방문 해남도에 대한 소개와 현지법인 소개등을 경청하였으며 농장 방문과 ERP 총평가 및 정리시간을 가졌다.

Namyang Company Staff Visits the Chinese Subsidiary

A delegation of twelve members from Namyang's ERP Team visited the Chinese Subsidiary from March 9 through 12. The group visited the subsidiary office, where they were briefed on Hainan Island and the Chinese subsidiary, toured the plantation, and held an ERP evaluation and wrap-up session.

13 ECONET 3사 승진자 연수 실시



ECONET의 국내 3사 남양알로에, 남양, 유니젠의 주임급 이상 승진자들은 지난 2월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대웅제약연수원에서 3박4일간의 일정으로 2회차에 걸쳐 승진자 교육을 받았다. 관리자로서 조직 내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문적 조직관리 기술을 익힘으로써 관리자로서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된 이번 교육은 신입주임·대리 과정과

신임 과장·신임차장, 신임부장 과정으로 구분되어 실시되었다. 세계화와 글로벌 마인드, CEO 마인드로 일하기 등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나는 기업의 구성원으로써 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들이 실시되었으며, 특히 8시간씩 지체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이 정식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진행 되었다.

Training for those who have been promoted in the three ECONET companies

A three-night, four-day training for those who had been promoted to positions of supervisor or higher in the three ECONET companies in Korea - Namyang Aloe, Namyang Company and Unigen Korea - took place at Daewoong

Pharmaceutical Training Center. The training, which was held in two rounds (February 15-25), is designed to reinforce the importance of management roles in the organizations and to teach professional organizational management techniques, thus improving employees' competence as managers. The training courses were for two groups: one for new supervisors and assistant managers and the other for new managers and new deputy senior managers. The program included sessions to help those aiming at the global market, highlighting concepts of globalization and a global mindset and developing a CEO's attitude. In particular, an eight-hour volunteer activity session was included as part of the regular program.

신입사원

New Hire



▲ 김종수 (남양알로에) / 마케팅팀 주임
JongSu Kim(NamyangAloe)
Supervisor (Marketing T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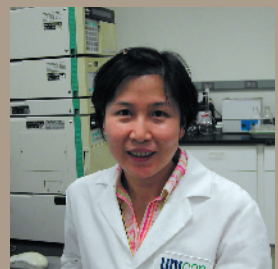
▲ 이윤진 (남양알로에) / 교육팀 주임 (식품강사)
YunJin Lee(NamyangAloe)
Supervisor (Food Lecturer,
Education Dept)



▲ 김훈경 (남양알로에) / 고객상담실 주임
HunKyoung Kim(NamyangAloe)
Supervisor (Customer Service)



▲ 패트릭 베네딕트 (유니젠) / 연구원
Patrick Benedict(Unigen) /
Associate Scientist



▲ 정미정 (유니젠) / 연구원
Mijeong Jeong(Unigen) /
QC Scient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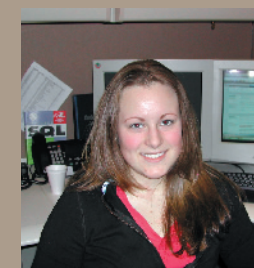
▲ 알렉스 네스테로브 (유니젠) / 게놈학 연구원
Alex Nesterov(Unigen) /
Genomics Scientist



▲ 타라 아담스 (유니베라) / 프론트 코디네이터
Tara Adams(Univera) /
Front Desk Coordinator



▲ 바브 풀톤 (유니베라) / 행정 관리/준법 코디네이터
Barb Fulton(Univera) /
Executive Administrator./
Compliance Coordinator



▲ 크리스탈 스프링거 (유니베라) / DB 프로그래머
Crystal Springer(Univera) /
Database programmer

(주)남양알로에 / Namyang Aloe



김효재 주임님의 첫째 아가

- ◆ 출산을 축하합니다.
- 2005년 3월 7일 부산경남팀 김효재 주임의 (첫째딸) 출산을 축하합니다. .
- ◆ 결혼을 축하합니다.
- 일시 : 2005년 4월 17일 12시 / 중부영업팀 김유수 주임 (신랑 : 박완기)
- 장소 : 음성대소농협예식장 (Tel: 043-881-7025)
- 일시 : 2005년 5월 7일 17시 30분 / 경영지원팀 김바다 대리
- 장소 : 팔레스호텔
- 일시 : 2005년 5월 21일 15시 / 영업기획팀 서정범 주임 (신부 : 윤지영)
- 장소 : 동국대학교 근처의 소피텔 호텔

◆ Congratulations on the birth of a new baby!

- March 7, 2005 Congratulations to Supervisor Hyojae Kim (Busan Gyeongnam Team) on the birth of his first daughter

◆ Congratulations on your wedding!

- Date: April 17, 2005 noon/Supervisor Yoosoo Kim, Jungbu Sales Team (Bridegroom: Wanki Park)
- Place: Eumsungdaeso Nonghyup Wedding Hall (Tel: 043-881-7025)

- Date : May 7, 2005 / Assistant Manager Bada Kim, Management Support Team
- Place : Palace Hotel
- Date : May 21, 2005, 3:00 PM / Supervisor Jeongbeom Seo (Bride : Jiyoung Yoon)
- Place : Sofitel Hotel near Donguk University

(주)남양 / Namyang Company

- ◆ 출산을 축하합니다.
- 2005년 2/4일 생산기술팀 정형철 대리의 장남 '정현석' 군의 출산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 Congratulations on the birth of a new baby!
- February 4, 2005 Congratulations to Assistant Manager Hyeongcheol Jeong (Production Technology Team) on the birth of his first son, Hyeonseok

(주)유니젠 한국 / Unigen Korea



박경민 대리님의 첫째딸 유채현 아가

- ◆ 출산을 축하합니다.
- 2004년 12월 21일 경영지원실 총무회계팀 박경민 대리님의 (첫째딸) 출산을 축하합니다.
- ◆ Congratulations on the birth of a new baby!
- December 21, 2004 Congratulations to Assistant Manager Gyeong-min Park (General Affairs & Accounting Team) on the birth of his first daughter.

Happy Birthday

남양 / Namyang



◆ (4/1) 서동미 DongMi Seo



◆ (4/4) 윤성원 SungWon Yoon



◆ (4/7) 안계환 KyeHwan An



◆ (4/6) 이경진 KyungJin Lee



◆ (4/9) 심호영 HoYoung Shim



◆ (4/9) 이재운 JaeYun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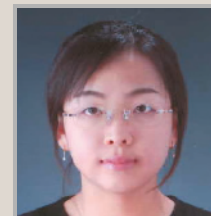
◆ (4/10) 안길순 KilSoon An



◆ (4/13) 방창규 ChangGeu Bang



◆ (4/20) 이병훈 ByoungHoon Lee



◆ (4/20) 오정숙 JungSook Oh



◆ (4/22) 차경애 KyungAe Cha



◆ (4/26) 김석원 Greg Kim



◆ (4/30) 심희연 HeeYun Shim



◆ (4/30) 유홍석 HongSuk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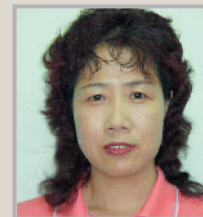
◆ (5/3) 박순정 SoonJung Park



◆ (5/3) 박정순 JungSoon Park



◆ (5/5) 신부희 BooHee Shin



◆ (5/7) 박종숙 JongSuk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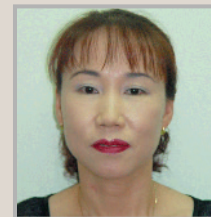
◆ (5/7) 김온수 OnSoo Kim



◆ (5/10) 신춘하 ChounHa Sh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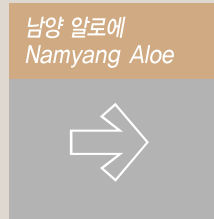
◆ (5/13) 오경아 KyoungAh Oh



◆ (5/26) 이태순 TaeSoon Lee



◆ (5/27) 박상순 SangSoon Park



◆ (4/5) 김윤식
YoonSik Kim



◆ (4/7) 콕은정
EunJeong Kwak



◆ (4/11) 이신희
SinHee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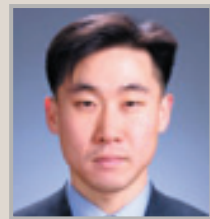
◆ (4/13) 이진우
JinWoo Lee



◆ (4/15) 김희수
HeeSoo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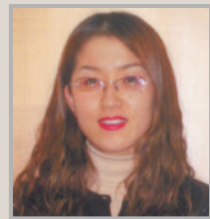
◆ (4/15) 김 현
Hyun Kim



◆ (4/18) 옥민상
MinSang Ock



◆ (4/19) 김봉호
BongHo Kim



◆ (4/30) 정현정
HyunJung Jung



◆ (5/8) 조은석
EunSuk Cho



◆ (5/9) 변인숙
IhnSook Byun



◆ (5/9) 정찬수
ChanSoo Chung



◆ (5/11) 최윤선
YoonSun Choi



◆ (5/14) 강창성
ChangSung Kang



◆ (5/22) 김훈경
HunKyoung Kim



◆ (5/24) 진찬숙
ChanSook Jin



◆ (4/7) 홍영주
YoungJoo Hong



◆ (4/14) 박길수
KilSu Park



◆ (4/17) 이정민
JungMin Lee



◆ (4/20) 조태형
TaeHyung Jo



◆ (4/22) 성희선
HeeSun Sung



◆ (5/19) 신 흥
Heung Shin



◆ (5/23) 김종한
JongHan Kim



◆ (5/27) 차경섭
KyoungSub Cha



◆ (4/1) 제리 필그림
Jerry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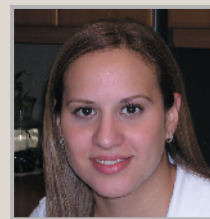
◆ (4/15) 산 화나 레오스
San Juana Leos



◆ (4/16) 마리아 멘도자
Maria Mendoza



◆ (4/19) 호세 가르시아
Jose Garcia



◆ (5/22) 루비 가자
Ruby Garza



◆ (5/29) 알버토 아다메
Alberto Ada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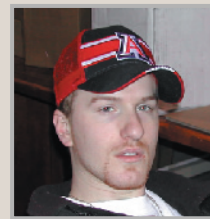
◆ (4/13) 사란 펜
Sarann P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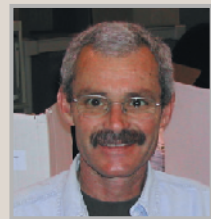
◆ (4/14) 조지 가스카
Jorge Gas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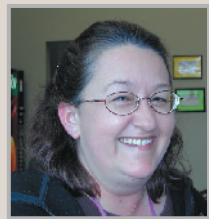
◆ (5/6) 헥트 에스코바
Hector Escobar



◆ (5/9) 트리비스 하우스키퍼
Travis Housekee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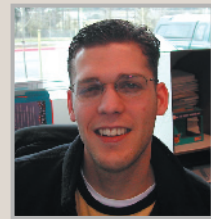
◆ (5/21) 랜드 그로버
Randy Grover



◆ (5/24) 데브 그로버
Deb Grover



◆ (4/3) 캐롤린 돌란
Carolyn Doolan



◆ (4/26) 스코트 졸리
Scott Jolley



◆ (4/6) 크리스티나 나바로
Kristina Navarro



◆ (5/31) 데릭 홀
Derek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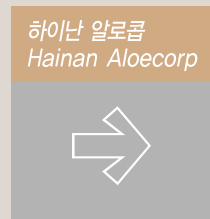
◆ (4/1) 하우만 바쉬리
Houman Bashiri



◆ (5/19) 캐시 마크햄
Kathy Markham



◆ (5/20) 유안 자오
Yuan Zhao



◆ (5/10) 송운섭
YoonSup Song

Happy Birthday

찰칵! 추억한장

에코네시안들의 행복과 깊은 뜻이 담긴 소중한 추억의 사진들을 여기 공개합니다. (6월호에도 많은 응모 바랍니다.)



1등 The first-prize winner

작은 도마뱀의 외출
유니베라 기술지원부 스코트 졸리
Little lizard by Scott Jolley (Univera)



2등 The second-prize winner

토끼띠들의 합창 -
(주)남양알로에 제품물류반 오성균
A chorus born in the year of the rabbit
Seonggyun Oh, Product Distribution Team,
Namyang Aloe



3등 The third-prize winner

윤사마 비켜라~ 정사마 나가신다.
(주)남양 전영숙
No more Sir Yon. It's time for Sir Jeong now
Youngsuk Jeon, Namyang Company



1 남양과 남양알로에의 뜻 깊은 스키 만남
Namyang and Namyang Aloe rendezvous at a ski resort



2 새우가 소주에 푹 빠진날
Shrimps soaked in Soju
Haegyeong Shin, Unigen Korea



3 빨래는 언제 마를런지!
Is the laundry ever going to dry up?



4 미국 노스웨스트 해안
유니베라 기술지원부 스코트 졸리
Northwest coast by Scott Jolley (Univera)

◆ 당첨 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Successful winners will be awarded with wonderful prizes!

Click!
Old Memory in a Snapshot!

Here are some treasured pictures of happy memories to share with other ECONETIANs.
(We're looking forward to seeing more pictures in the June issue.)

어머니의 발

— 레고산나 · 양민진 · 김혜아 —



시장 바닥에서 하루 종일 생선을 파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혼자서 두 딸을 키워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생선을 파느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시장 어귀에서 목청을 높였습니다.
“싱싱한 고등어 사세요. 물 좋은 오징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추운 겨울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두꺼운 양말을 두 켤레나 신어도 물기 축축한
어시장 바닥에서 지내다 보면 신발 안으로 물이 새어 들어와 발은 금방 얼어붙고 볼도 빨갛게 얼었습니
다.
딸들은 어머니가 들어오면 자주 짜증을 부렸습니다.
“아유 지독한 냄새. 이젠 생선 비린내가 지긋지긋해.”
그리고 서로 어머니 옆에서 자지 않겠다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런 딸들을 한번도 나무
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마음속에는 아버지 없이 자라는 딸들이 늘 안쓰러웠기 때문입니다.
두 딸은 무럭무럭 자라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큰딸은 동네에다 조그마한 화장품 가게를 차렸습니다.
작은 딸도 번듯한 상가에다 커다란 신발 가게를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평생 해 오던 생선 장사를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번듯한 가게에서 장사를 하는 두 딸이 마냥 대견했습니다.
평생 화장품 한 번 바르지 못하고 살아서인지 어머니는 큰 딸의 가게에 가면 웬지 자신의 몸에 배인 비린
내가 향기로운 냄새로 바뀌는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딸의 가게에 가면 질척한 바닥에서 평생 장화만 신었던 자신의 발에
어느새 예쁜 구두가 신겨져 있는 것 같아 또 행복해졌습니다.
두 딸은 모두 장사가 잘되어 제법 돈도 모았습니다. 어느날 어머니가 두 딸을 조
용히 불렀습니다.
“애들아, 내가 돈이 좀 필요하구나.”
큰딸이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둘이 생활비를 보태 드리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세요. 게다가 저
희는 따로 사는데 어머니 혼자 무슨 생활비가 그리 많이 든다고...”
“그게 말이다...” 어머니가 말을 하려는데 작은딸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저희도 장사가 안돼서 죽겠다구요. 얼마가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다음 달에 드릴게요.”
어머니는 하려던 말도 채 못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게에 들르던 어머니가 어느 날부터
인가 발길을 뚝 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니 빨리 오라는 전화였습니다.
두 딸들은 황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구급차로 어머니를 병원에 모신 것입니다.
“어찌 된 일인가요?”
딸들은 이웃집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이 몹쓸 사람들아. 어머니 발을 한번 보게나.”
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어머니 발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평생 생선 장사로 자네들을 이만큼 키워 났으면 어머니를 잘 보살펴 드려야지. 어머니 동상 걸린 발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본 적이 있는가.
걷지도 못해서 발가락을 잘라 내야 한다네.”
딸들은 그제야 어머니 발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어머니 발은 동상에 걸려 다 썩어 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장화 속에 발을 넣은 채 시장 바닥에서 평생을 지낸 어머니의 발!
그 발은 검게 썩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키워 준 어머니의 발이 무척이나 작고 여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들은 어머니의 발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발이 아파 수술비를 달라고 부탁했던 것인데 딸들은
그것조차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수술을 마치고 회복을 기다리는 어머니 앞에 두 딸들이 섰습니다.
큰딸이 어머니께 작은 선물을 내놓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평생 화장품 한 번 바르지 못한 어머니께 진작 크림이라도 선물했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작은딸이 선물을 내놓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신발을 진작 어머니 발에 신겨 드렸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두 딸의 손을 꼭 잡은 채 누물만 흘렸습니다.

♣ 부모님의 고단한 발을 한번이라도 닦아 드리고 주물러 드린 적이 있나요?
자식의 작은 손길이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 드립니다.





사진 공모 이벤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ECONET을 상상해 보세요...
이제 더 이상 상상의 세계에 머물지 않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사랑하는 기업을 전 세계가 직접 경험하도록 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농장에서, 들에서, 숲에서 본사 브랜드 ECONET과 함께 하는 모습을 함께 해 주세요.

ECONET이 위치한 모든 대륙에서 촬영한 사진을 통해, 'ECONETIAN', 다시 말해 ECONET 일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경험을 전해 주세요.

멋진 세계 ECONET 사진 공모전의 서막을 열겠습니다. 우선 공모전 응모에 대해 말씀 드리면, 반드시 'ECONET'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것을 몸에 걸치고 있어야 합니다. 사진에 'ECONET'이라는 문자가 보인다면 셔츠, 모자, 바이저 등 여러분이 상상하는 어떤 것을 착용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2005년 8월, 다음 각 부문 공모전 우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 각 부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장 아름다운 풍경 사진(Most Beautiful Scenery)
 - 농장, 들, 강, 산, 바다, 나무 등 어느 곳에서 촬영해도 됩니다.
- 유명인사와 함께 한 최고의 사진(Best Celebrity Buddy)
 - TV, 영화, 스포츠 스타 또는 유명 정치인이나 문인과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 여러분이 유명인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나 함께 버스를 타고 있는 모습, 또는 함께 재미있는 일을 하는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장 흥미로운 유명 건축물 사진(Most Interesting Architectural Landmark Photo)
 - 자유의 여신상, 중국 만리장성,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에펠탑 등 휴가 중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을 방문하시면, 그 앞에서 사진을 촬영해 주세요.
- 가장 재미있는 사진
 - 다양한 ECONET 가족이 큰 소리로 웃거나 미소 짓는 모습을 담은 사진으로, 인물의 얼굴을 촬영해야 합니다.

▶ 상품안내

- 각 부문 우승자
 - 원하는 곳 어디서든 식사할 수 있는 300달러짜리 상품권을 드립니다.
- 전 부문을 포괄하는 최우승자
 - 하와이, 멕시코, 시애틀, LA행 왕복 항공권 2매와 ECONET WAY 8월호 표지에 소개되는 영광을 드립니다
- 각 사의 법인카드에서 제공하는 포인트 상품권

▶ 이벤트 취지

- 이번 이벤트는 Oasis Scotty Kufus 이사님 제안으로 8월에 있는 Oasis Sales Associate들의 큰 행사에 맞춰 이 ECONET Picture Contest의 사진이 들어간 ECONET WAY를 ECONET Brand 홍보의 목적으로 쓰일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만의 사진을 촬영해 보세요.

개인이 출품할 수 있는 응모작 수는 각 부문별 세 개입니다.

출품 마감일은 2005년 6월 15일입니다. 사진은 ECONET@UNIVERA.COM 보내주세요.

또는 <http://webhard.namyangaloe.com> (ID: econetway PW: econetway)에 올려주세요
각 부문별 상위 10개 사진을 게시하면, 전 세계 직원이 게시된 사진에 대해 투표를 하게 됩니다.

자연과 인류의 최고(The Best of Nature and Mankind)”를 함께 이끌어 내는 여러분 노력에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World Wide ECONET Photo Contest!

Imagine....ECONET known around the world...

No reason to imagine it any longer, it is time that the world experience the company we all know and love. We want to see our brand name ECONET from the Farms, Fields and Forests of the world with your family.

We want you to share the experience of being an ECONETIEN with pictures from our employees on every continent that Econet operates. Its time for a wonderful World Wide ECONET Photo Contest!

▶ In August of 2005 we will publish the world wide winners in the following categories..

- Here is how it works You must be wearing something that Says ECONET on it. A shirt, A hat, A visor or whatever you might dream up to wear in a photo, as long as it says ECONET in the photo.
- Most Beautiful Scenery ... Farms, Fields, Rivers, Mountains, Oceans, Trees etc..
- Best Celebrity Buddy Photo ... You must take a picture with a Star from TV, Movies, Sports, Politics or Literature. They must be with you somehow, holding your hand, sitting in a bus...something fun.
- Most Interesting Architectural Landmark Photo ... Take a picture in front of a world Landmark while you are on vacation. Statue of Liberty, Great Wall of China, Sydney Opera House, Eiffel Tower, etc..
- Funniest Faces ... A picture with a variety of ECONETIANS laughing or smiling.

▶ Winners in Each Category Get a \$300 Gift Certificate for Dinner To anywhere they want to eat.

▶ TOP AWARD for the BEST all around Winner....

Two Round Trip Airline Tickets to Hawaii, Mexico, Seattle, Los Angeles and the COVER of the August ECONET WAYMAGAZINE...

▶ Point gift certificates provided by corporate cards of each company

▶ Purpose of the Event

At the suggestion of Scotty Kufus, a director at Oasis, the ECONET WAY with photographs from the ECONET Photo Contest will be used to promote the ECONET brand at a large event planned for Oasis Sales Associates in August.

Start snapping your photos soon...

Each person can submit Three photos per category. All Photos must be submitted by June 15th, 2005.

Send all Photos to SeanL@oasisnetwork.com , or <http://webhard.namyangaloe.com> (ID: econetway PW: econetway)

The Top 10 photos in each category will be posted and voted on by Employees around the world.

Good Luck Bringing together “ The Best of Nature and Mankind”

2월호 퀴즈 & 사진컨테스트 당첨자 발표

퀴즈 정답 – Oasis, AgelessXtra, 노화, 유니젠 미국에서, 관절, 천연, Univestin®

▶ 2월호 퀴즈당첨자

- 알로엔느 3종 받으실분
(주)남양알로에 / 김유수, (주)남양 / 신부희, (주)유니젠 / 황보현정
- 문화상품권 1만원권 받으실분
(주)남양알로에 / 곽은정, (주)남양 / 김정섭
- 알로에버라인 컨투어세럼 받으실분
오아시스 / Ed Clark, Jorge Gasca, 미국 유니젠 / Kathy Markham

▶ 2월호 사진컨테스트 당첨자

- 강타(KANGTA)의 멋진 싸인이 들어간
새로나온 CD를 증정합니다.
1등 – (주)남양알로에 / 서정범,
2등 – (주)남양 / 전영숙,
3등 – 유니베라 / Scott Jolley

4월호 ECONET WAY 퀴즈

- 유니젠이 개발한 천연물 기능성 신소재 ()와 ()가 식품의약품 안전청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 소재로 개별
기능성인정을 획득하였습니다. ()소재는 대나무잎을 소재로 개발한 기능성소재로 콜레스테롤 및 지질 대사와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소재이며, ()는 황금(黃芩)과 아선약을 혼합한 기능성 소재로 관절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을 인정 받아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Winners of the February Quiz and Photo Contest

Answers - AgelessXtra, Oasis, aging, Unigen USA, natural, joint, Univestin®

▶ Winners of the February Quiz

- Winners of Aloenne gift sets
Yusu Kim / Namyang Aloe,
Buhee Shin / Namyang Company,
Hyunjeong Hwangbo / Unigen Korea
- Winners of Culture Gift Certificates (10,000 won each)
Eunjeong Kwak / Namyang Aloe,
Gyeongseob Kim / Namyang Company
- Winners of ALOEVER line contour serums
Ed Clark, Jorge Gasca / Oasis,
Kathy Markham / Unigen USA

▶ Winners of the February photo contest

- Winners will receive a newly released CD, personally
autographed by KANGTA (a popular singer in Korea)
- The first prize winner: Jungbum Suh / Namyang Aloe
 - The second prize winner:
Youngsuk Jeon / Namyang Company
 - The third prize winner: Scott Jolley / Univera

Quiz for the ECONET WAY April issue

() and (), natural product-based new functional materials developed by Unigen, obtained
Individual Functionality Certifications as health supplement materials from the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 a functional material developed from bamboo leaves, has positive effects on cholesterol
and lipid metabolism and anti-oxidation. () is a functional material developed by combining skullcap and
gambir. It has been certified for its efficacy in relieving joint discomfort.



에코넷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Postcard

ECONET WAY

독자엽서

보내는 사람 (고객, 직원, 가족)

성명

소속

주소

전화

—

받는사람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3동 302-4 에코넷센터 3층
(주)남양 에코넷 기업본부본부 “에코넷웨이” 편집담당자 앞

1

3

3

—

1

2

0

ECONET WAY

Postcard

sender (customer, employee, family)

Name

Division

Address

Phone number

—

Please send to

The Editor of ECONET WAY,
ECONET Corporate & Shared Service Center,
Namyang Company
3th floor, ECONET CENTER 302-4,
Sungsu-dong 2-ga, Sungdong-gu, Seoul, Korea

1

3

3

—

1

2

0

ECONET WAY



We strongly encourage active participation by all members of the ECONET family.

• 함께 만드는 ECONET WAY •

에코네시안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감명깊게 읽은 책, 기억에 남는 공연, 좋은 추억이 된 여행, 자신만의 에세이 등 자유롭게 다양한 소재와 주제의 원고를 보내주세요.

- 1. 이번호에서 가장 흥미롭고 유익했던 기사는 무엇입니까?
- 2. '에코넷웨이'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는 무엇인가요?
- 3. '에코넷웨이'에 전하고 싶은 의견이나 제안을 적어 주십시오.
- 4. 참여하고 싶은 코너나 추천하고 싶은 사우를 적어주세요.

● 4월호 정답

• Let’s join the ECONET WAY •

ECONET WAY is awaiting your participation. Please contribute articles on any topic, such as your favorite book, an unforgettable performance, a memorable trip or a personal essay. Your contribution would be deeply appreciated.

- 1. Which article did you find most interesting or useful in this month’s issue?
- 2. What would you like to read in future issues of ECONET WAY?
- 3. Please submit any comments or suggestions you have for ECONET WAY.
- 4. Kindly suggest a section to which you’d like to contribute or a colleague you’d like to recommend.

● Answer

ECONETWAY

에코넷 가족 / ECONET Family



(주)남양 / Namyang Company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370-92
☎ : 365-850
370-92 Yongjeong-Ri, chopyeong-Myon,
Chinchon-Kun, Chungbuk, 365-850, Korea
Tel : (043)532-5144, Fax : (043)532-5328
www.namyangglobal.com

(주)남양알로에 / Namyang Aloe Inc.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302-4 에코넷센터
☎ : 133-120
ECONET CENTER 302-4, Sungsu-dong 2- ga,
Sungdong- gu, Seoul, Korea
Tel : (02)460-8865, Fax :(02)467-9988
www.namyangaloe.com

(주)유니젠 한국 / Unigen Korea

충남 천안시 병천면 송정리 200-1번지
☎ : 330-863
#200-1, Songjung-Ri, Byeongcheon-Myeon,
Cheonan-Si, Chungnam 330-863, Korea
Tel : (041)529-1510, Fax : (041)529-1599
www.unigen.net

유니베라 / Univera, Inc.

2660 Willamette Drive
Lacey, WA 98516
Tel : (360)486-8300, Fax : (360)413-9185

오아시스 / Oasis Lifesciences

2660 Willamette Drive
Lacey, WA 98516
Tel : (360)486-7500, Fax : (360)413-9150
www.oasislifesciences.com

미국 유니젠 / Unigen Phmaceuticl inc.

2660 Willamette Drive
Lacey, WA 98516
Tel : (360)486-8200, Fax : (360)413-9135
www.unigenpharma.com

알로콧(생산) / Aloecorp Inc (Production)

61/2 Miles North of La Villa On FM 491
Lyford, Texas 78569 U.S.A
Tel : (956) 262-2176 Fax : 956-262-8113
www.aloecorp.com

알로콧(영업) / Aloecorp Inc (Sales)

2660 Willamette Drive
Lacey, WA 98516
Tel : (360)486-7400, Fax : (360)413-5036
www.aloecorp.com

중국 하이난 알로콧 / Hainan Aloecorp

Room #1108, Haikou International Commercial Centre, No.38,
Datong Road, Haikou, Hainan, China - Zip Code : 570102
Tel : (898)-6674-5400, Fax : (898)6674-3400

유니젠 러시아 / Unigen-Russia

3rd Floor, Aleutuskaya 14str.
Bladivostok, Primory, Russia
Tel : 7-4232-30-10-66, Fax : 7-4232-30-10-64

남양알로에의 신화창조는 계속 됩니다

남양알로에의 '액티브알로에'!
700여 세계 유수 기업들은 우리의 남양알로에 원료만을 고집합니다.



세계 알로에 원료시장의 40%를 공급,
알로에의 세계 표준을 제시해 온 남양알로에가 TTS공법으로 만든 액티브알로에!
액티브알로에는 알로에 가공기술 과학화로 얻어낸 유효성분의 전달체로
면역수복 증진을 하는 다당체가 생초보다 3배 높습니다.



TTS공법이란?

최고의 알로에를 위한 시간(Time), 온도(Temperature), 위생(Sanitation) 3박자가
어우러져 미국 특허를 받은 남양알로에만의 공법입니다.

■ 남양알로에 제품은 방문 생활건강설계사에 의해서 판매됩니다. ■ 무료상담전화 080-022-7575
반품 및 교환안내-구입 시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구입처 또는 본사(고객지원팀)에서 즉시 교환해 드립니다. 대표전화 02)463-3100 팩스 02)463-9162

NamyangAloe